

제7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발표 논문

2016.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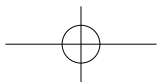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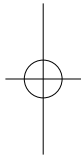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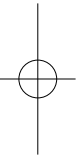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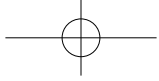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 행태 연구 및 시사점

이 민 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CONTENTS



요약

제1장. 서론	_5
제2장.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	_6
제3장.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_15
제4장. 결론	_26

제1장. 서론	30
---------	----

제2장.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	31
--------------------------	----

1. 미국 페이데이론	31
1) 미국 페이데이론의 특징	31
2)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	39
2. 영국 페이데이론	41
3. 일본 대금업	45

제3장.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54
------------------------	----

1.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54
2. 대부업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57

제4장. 결론	81
---------	----

※참고문헌 _83

※참고자료 _84



〈요 약〉

제1장. 서론

- 우리나라 대부업시장은 최고금리의 인하,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등으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음
-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연39%에서 연27.9%로 인하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압력 증가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5%이내로 제한하고 금융권별 비대면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고객신용정보보호 강화로 영업환경 악화
-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저축은행과의 고객 확보경쟁이 가속화되는 한편, 전체 시장규모는 축소가 불가피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업 이용자의 니즈 및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를 명확히 규정지음과 동시에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부업 이용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 연관성을 분석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대부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에 대해서는 약탈적 고금리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과 더불어 손쉬운 이용환경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들에게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수요측면에서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 접근하는 한편, 미국, 일본, 영국의 저신용자 대출시장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부업과 유사한 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이용특성에 대해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대부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장.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

1. 미국 페이데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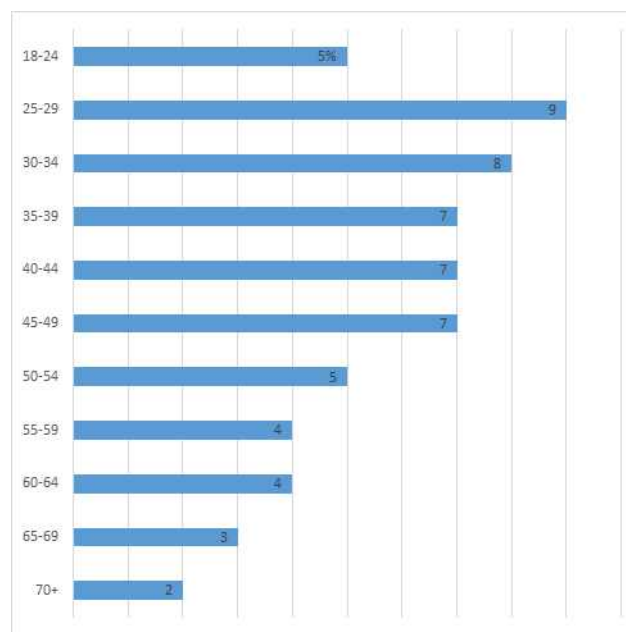
1) 미국 페이데이론의 특징

- 페이데이론은 높은 이자율로 개인들이 단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는 서비스임
 - 페이데이론 이용자들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빌리고자 하는 날짜와 함께 적어 수표(check)로 제출
 - 페이데이론 업자는 그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기입되어 있는 날에 맞춰 돈을 지급하고 이용자의 다음 월급날에 대출금을 회수
 - 약 1,200만 미국 성인들이 매년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며, 이용자는 평균 375달러 씩 8번 정도 대출을 받고 1년에 이자로 520달러 정도 지불
- Pew의 조사에 따르면¹⁾ 2010년 미국성인 인구의 5.5%가 페이데이론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중하위 소득계층과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 Pew Charitable Trusts(2012) 참조

- The PEW Charitable Trust에서 2012년 조사한 페이데이론 이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52%가 여성이며, 55%는 백인임
- 그리고 자가 소유자의 경우 4%가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는 반면, 세입자는 10%가 페이데이론을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5~44세의 비중이 31%, 가구소득이 40,000달러 이하인 경우가 72%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해 대출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연령대별 페이데이론 이용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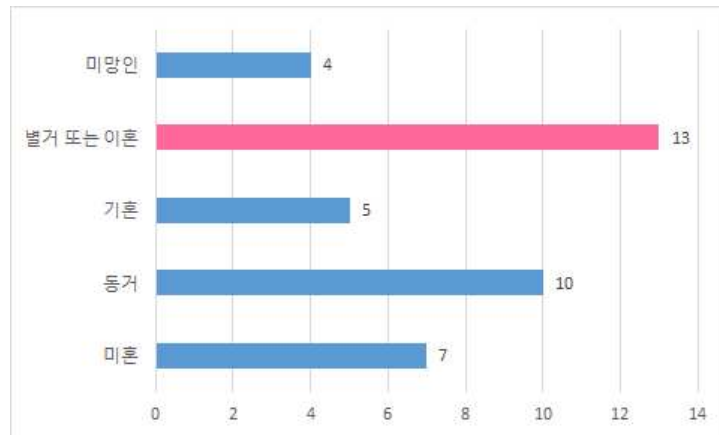


자료: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 교육수준에 따른 페이데이론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 이하 학력자에 비해 현저히 페이데이론의 이용률이 떨어진 반면, 4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자들간에 페이데이론 이용률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었음

- 혼인여부에 대해서는 별거 또는 이혼 중인 경우에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는 경향이 기혼자보다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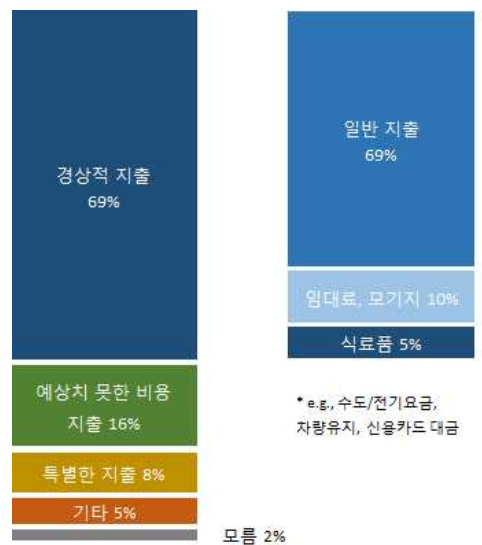
혼인여부에 따른 페이데이론 이용현황



자료: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 페이데이론 이용 목적은 70% 정도가 생계비 지출을 위해 페이데이론을 이용한다고 응답

페이데이론의 사용 목적



- 페이데이론 이용목적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69%가 생활비 조달을 위해 페이데이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단지 19%만이 특별한 사고나 사건 때문에 페이데이론을 이용한다고 응답

2)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

- 페이데이론은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약탈적 대출의 성격이 강해 주별로 이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가. Permissive States(허용형 규제)

- 1) 연간 391%~521%(2주 간 15%~20%)에 해당하는 금리는 허용됨.
- 2) 페이데이론 점포가 이러한 주들의 곳곳에서 영업 가능하며, 미국인의 대부분이 (55%) 이러한 형태의 규제를 허용하는 28개 주에 살고 있음

나. Hybrid States(혼합형 규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규제를 시행함.

- 1) 대출원금의 10% 금리상한 설정. 대부분의 주에서 보다 낮은 금리이지만 여전히 연간 세 자릿수의 고금리를 허용하는 것임.
- 2) 대출 이용자 당 대출계약 수의 제한 설정. (예/ 이용자 당 연간 최대 8회 대출)
- 3) 복수 기간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금으로 이전 기간의 대출 상환을 가능하도록 허용함

다. Restrictive States(제한형 규제)

- 1) 페이데이론이 주에서 사라지도록 할 만큼 금리상한을 낮게 설정(연간 36% 수준)하며 이러한 주에서는 페이데이론 점포를 찾아볼 수 없음.
- 2) 29%의 미국인이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는 14개주 및 콜럼비아 지역에 거주함.
- 3) 점포에 대한 규제가 페이데이론 이용자들이 하여금 규제영역 밖의 온라인 대출을 성행하도록 한다는 우려가 존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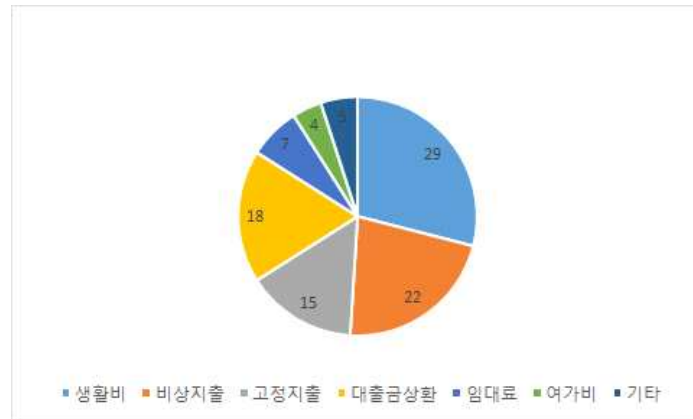
- 페이데이론은 성, 인종, 민족,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의 경계를 넘어 대부분의 사회계층을 가리지 않고 이용되는 상품임

- 그러나 연복리 400%를 넘는 2주 짜리 대출 상품이 만성적인 현금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팽배하고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주 당국에서 강력히 규제하는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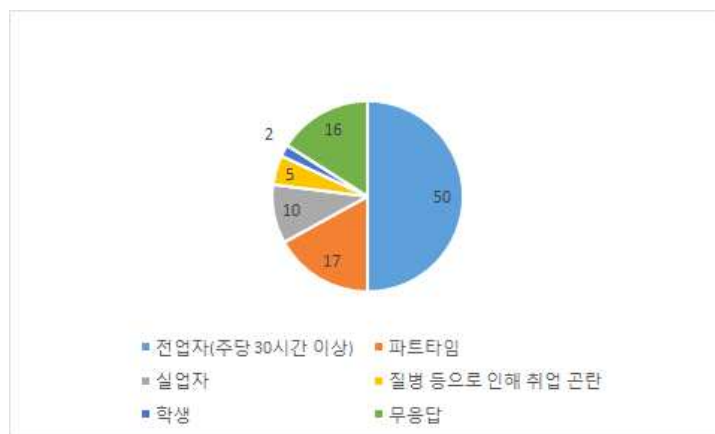
2. 영국 페이데이론

-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도 개시된 페이데이론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수단임
- 영국의 페이데이론의 이용자는 자동차나 의료 사고, 집수리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급여일 이전에 자금이 부족한 자임
- 영국 페이데이론과 가계신용대출과 가장 큰 차이는 페이데이론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 소유 여부 및 고용사실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임
- Citizens Advice Scotland(CAS)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절반 정도는 풀타임 근로자이며 200~499파운드의 금액을 차입
- 영국의 페이데이론은 2011년 기준 2.0~2.2조 파운드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출금 100파운드당 수수료는 14~51파운드 사이에서 결정되고, 평균 25파운드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
- 다음으로 페이데이론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생계비(식품이나 연료 구입)였으며 긴급한 지출이 22%, 여타 대출의 상환이 18%를 차지
-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50%가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이며 다음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17%, 실업자가 10%순

페이데이론 이용 목적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직업



3. 일본 대금업

□ 일본에 있어서 대금업은 개별업법에 의해 규정된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신용금고 등)를 제외한 금전의 대출과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광범위하게 정의

○ 대금업의 기원은 1960년 전후에 시작된 단지(團地)금융에서 찾을 수 있다. 단지금융은 당시 고소득층이 중심이었던 아파트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출해주는 업무를 지칭

- 이 당시 일본 대금업의 영업형태는 이용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신청을 받아, 직접 직원이 대출금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는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는 목적 이외에도 이용자의 주거지 확인 및 본인 확인이라는 심사기능을 겸비

□ 금융청의 “대금업 이용자에 대한 조사·연구”와 닛케이리서치의 “금융행동조사”²⁾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본 대금업이용자의 이용형태를 분석

- 닛케이의 금융행동조사에 따르면 대금업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금업 이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용자가 가장 높고, 30대, 50대의 순임
- 직업에 있어서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의 비중이 전체 샘플에서는 35.1%에 불과했으나 대금업 이용자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약 44%로 증가
- 대금업 이용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무직 등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연간소득에 있어서 300만엔 이하의 저소득 구간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700만엔 이상의 상위소득 구간 비율이 전체 대상자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대금업의 대출 공급이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2011년 금융행동조사에 대해서는 田口(2013)을 참조.

□ 닛케이의 금융행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직업별로는 비정규직, 그리고 가족이 있는 가구에서 대금업을 이용할 확률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직업 및 고용형태의 경우 무직은 민간 및 공적기관의 정규직에 비해 대금업을 이용할 확률이 5% 유의수준에서 3.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가족구성에 관해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에 비해 자녀가 없는 기혼이 대금업을 이용할 확률이 5.7포인트 낮게 나타났음

□ 금융청 조사에서는 3년 이내 차입경험자가 약 6.9%, 3년 이내 차입경험이 없는 자가 약 93.1%를 차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용목적 >

	샘플 수	생활비 (광열 수도 등) 부족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나 돈이 부족해서	신용 카드 이용 대금 지불을 위해	유혹 비가 부족 해서	관혼 상제 지출을 위해	의료비 지출	다른 대금업 자의 차입 자금 상환	도박 자금의 부족	주택 대출 자금 상환	기타
3년 이내 차입경험자 전체	2046	38.1	28.5	21.4	16.9	6.5	5.6	4.8	4.8	4.1	7.6
0엔	170	44.7	27.1	19.4	13.5	2.4	3.5	3.5	3.5	1.8	10
1~300만엔 이하	962	44	26.8	21.9	13.9	6.7	6.1	4.9	3.6	3.6	7
301~500만 엔 이하	503	33.4	31.8	22.3	17.5	8.7	6	4.4	7	3.8	4.8
501~1000 만엔 이하	372	28.2	29	19.9	25.5	5.4	5.4	6.2	5.4	6.7	9.9
1001만엔 이상	39	20.5	30.8	20.5	15.4	2.6	0	0	5.1	5.1	28.2
회사원	854	36.2	28	21.3	21.1	5.2	4.8	4.7	5.4	4.6	6.8
경영자 및 임원	73	37	32.9	27.4	5.5	8.2	2.7	2.7	5.5	9.6	
개인사업자	672	46	24.3	23.4	11.5	6.8	5.1	5.4	4.3	5.2	8.2
공무원	92	21.7	32.6	17.4	16.3	3.3	2.2	4.3	6.5	4.3	14.1
전문직	57	35.1	36.8	19.3	15.8	12.3	7	1.8	1.8	0	3.5
농림어업	30	30	30	20	13.3	3.3	3.3	3.3	0	0	6.7
파견, 계약 사원	178	50.6	30.9	24.7	12.9	9	3.9	7.3	6.2	4.5	6.7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308	47.7	24	23.1	13.3	7.8	8.1	5.5	4.2	2.3	4.9
전업주부	145	40.7	24.8	17.2	11.7	5.5	6.2	2.8	2.8	2.8	10.3
무직	160	27.5	35.6	22.5	20	6.3	8.8	4.4	4.4	3.1	8.1
학생	35	31.4	34.3	20	22.9	0	8.6	2.9	2.9	14.3	11.4
기타	9	39.1	19.3	0	0	0	0	0	10	9	0

자료: 금융청, 소비자금융 이용자에 관한 조사·연구, 2015.12

- 이러한 대상에 대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소비자금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수입, 직업을 기초로 이용목적에 대해 분석

< 소비자금융의 이용목적 >

	샘플 수	생활비 (광열 수도 등) 부족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나 돈이 부족해서	유흥비가 부족해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불을 위해	다른 대금업자의 차입 자금 상환	도박 자금의 부족	관혼 상제 지출을 위해	의료비 지출	주택 대출 자금 상환	기타
3년 이내 차입경험자 전체	582	42.8	21.8	20.3	18.6	11	9.8	8.8	7.6	5.8	4
0엔	29	48.3	24.1	17.2	10.3	6.9	6.9	10.3	17.2	0	6.9
1~300만엔 이하	290	51.4	17.9	17.9	19.7	11	7.2	6.9	7.9	4.8	4.1
301~500만 엔 이하	170	35.3	25.9	22.4	18.8	10.6	12.4	10	4.7	3.5	2.9
501~1000 만엔 이하	89	29.2	24.7	25.8	18	13.5	12.4	12.4	9	15.7	4.5
1001만엔 이상	4	0	50	0	0	0	50	0	0	0	0
회사원	302	37.7	22.8	21.9	19.5	10.9	11.3	11.3	7.3	7.3	2.6
경영자 및 임원	15	33.3	13.3	6.7	6.7	6.7	13.3	6.7	6.7	6.7	6.7
개인사업자	150	45	18	11.3	25.3	10.7	5.3	7.3	4.7	7.3	9.3
공무원	34	41.2	26.5	17.6	17.6	14.7	14.7	2.9	2.9	8.8	5.9
전문직	11	63.6	18.2	18.2	36.4	18.2	0	18.2	9.1	0	0
농림어업	4	50	25	0	50	0	0	0	0	0	0
파견, 계약 사원	47	51.1	21.3	25.5	14.9	10.6	8.5	0	4.3	0	6.4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93	59.1	19.4	21.5	19.4	10.8	5.4	6.5	6.5	2.2	4.3
전업주부	19	42.1	15.8	21.1	15.8	5.3	10.5	10.5	5.3	5.3	0
무직	21	42.9	19	28.6	9.5	19	9.5	14.3	0	4.8	0
학생	15	33.3	33.3	6.7	13.3	6.7	6.7	0	26.7	13.3	0
기타	9	39.1	19.3	0	0	0	0	0	10	9	0

자료: 금융청, 소비자금융 이용자에 관한 조사·연구, 2015.12

- 현금서비스의 경우 생활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38.1%), 갖고 싶은 물건 구입(28.5%), 신용카드 대금 지급(21.4%) 순임
- 그리고 연간수입이 낮을수록 생활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비율이 높고, 직업 별로는 개인자영업자, 파견 및 계약사원 등 신분이 불안정한 직업의 생활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차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소비자금융업 이용에 있어서는 생활비 부족분의 충당(42.8%), 갖고 싶은 물건의 구입(21.8%), 유흥비의 부족(20.3%)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금서비스에 비해 생활비 조달을 위한 차입비중이 높게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연수입과 이용목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간수입이 낮을수록 생활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소비자금융이 현금서비스에 비해 높게 나타남

제3장.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1.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 매년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이용실태를 기초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개략적인 특성을 도출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별 대부업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20~30대 이용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 중고령층의 이용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의 95%(2015년 기준)가 고졸이상이며 대학원 졸업 이상도 2%를 차지하는 등 여타국가에 비해 고학력자 비중이 높음

- 직업별로는 회사원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주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가 채무불이행 경험 이 없는 정상거래자로 크게 변동 없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사용용도에 있어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생활자금 등 생계형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2. 대부업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2012년과 2016년에 실시한 대부업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분석

-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설문지 조사항목 중, ① 대부업 이용 경험, ② 총부채금액, ③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입금액, ④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 ⑤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한 근본적인 이유, ⑥ 차입금의 사용처, ⑦ 대부업 선택 시 고려사항, ⑧ 대부업을 알게 된 동기, ⑨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상담 여부, ⑩ 타 금융기관 상담 후 대부업체를 이용한 이유, ⑪ 타 금융기관에 상담하지 않고 대부업을 이용한 이유, ⑫ 채무상환 방법, ⑬ 대부업의 부족한 점, ⑭ 대부업의 좋은 점 등 이상의 14개 질문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
- 범주형 질문 중 질문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를 카테고리화
- 총 대상자는 전체 표본수에서 응답하지 않는 표본을 제외한 결과, 2012년 3,664명, 2016년 4,822명이며 이 중 남성은 2012년 기준 53.4%, 2016년 기준 54.8%를 차지

- 연령별로는 이용빈도수에 따라 30대 및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
- 직업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인 60%정도를 회사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 주부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월소득에 있어서도 300만원 이하의 중간이하의 소득계층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기혼자의 비중이 미혼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 표본 분포 ＞

		2012년(%)	2016년(%)
성별	남자	1955(53.36)	2642(54.79)
	여자	1709(46.64)	2180(45.21)
연령	20대	813(22.19)	992(20.57)
	30대	1511(41.24)	1454(30.15)
	40대	921(25.14)	1412(29.28)
	50대	387(10.56)	842(17.46)
	60대 이상	32(0.87)	122(2.53)
학력	초등졸	21(0.57)	31(0.64)
	중졸	102(2.78)	182(3.77)
	고졸	1822(49.73)	2549(52.86)
	대졸	1641(44.79)	1978(41.02)
	대학원이상	78(2.13)	82(1.7)
직업	회사원	2227(60.78)	2891(59.95)
	공무원	82(2.24)	103(2.14)
	자영업	796(21.72)	1176(24.39)
	주부	437(11.93)	542(11.24)
	대학(원)생	48(1.31)	38(0.79)
	무직	74(2.02)	72(1.49)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42(5.02)
	100~200만원		1564(32.43)
	200~300만원		1584(32.85)
	300~400만원		726(15.06)
	400~500만원		348(7.22)
	500~600만원		168(3.48)
	600만원 이상		190(3.94)
금융채부 불이행 여부	금융채부 불이행자	292(7.97)	477(9.89)
	정상거래자	3372(92.03)	4345(90.11)
결혼 여부	미혼	1663(45.39)	2006(41.6)

	기혼	2001(54.61)	2816(58.4)
동거가족수	1명		924(19.16)
	2명		858(17.79)
	3명		1288(26.71)
	4명		1349(27.98)
	5명		403(8.36)

< 범주형 질문의 구분 >

질문 내용	설문지 답변
⑤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한 근본적인 이유	
1) 생계형	① 실직 및 휴직 ② 부도 등 사업실패 ③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필요
2) 소비형	④ 경마·화투 등 도박 ⑤ 술, 오락 등 유흥비 마련 ⑥ 옷 등 과도한 쇼핑(과소비)
3) 상환형	⑦ 금융회사 대출금 정리
⑥ 차입금의 사용처	
1) 사업	① 사업자금
2) 생활	② 가계생활자금
3) 금융기관 관련	③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④ 카드(연체)대금 납부 ⑤ 다른 대부금융 대출 상환
⑦ 대부업 선택시 고려사항	
1) 금리	① 이자율
2) 등록여부	② 대부업 등록 여부
3) 대출서비스	③ 대출의 신속성 ⑤ 대출기간 ⑥ 대출금액
4) 친절도	④ 친절도
⑧ 대부업을 알게 된 동기	
1) 케이블	① 케이블 등 TV광고
2) 신문	② 생활정보지(무가지) ⑥ 일간지 ⑦ 전단지
3) 인터넷	③ 인터넷(메일)
4) 지인	④ 친구 등지인
5) 휴대폰	⑤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6) 중개업자	⑧ 중개업자
⑨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상담 여부	
1) 은행	① 은행

2) 저축은행	② 저축은행
3) 상호금융	③ 신협 ④ 새마을금고
4) 상담경험 무	⑤ 금융기관에서 상담 받은 적 없음
⑫ 채무상환 방법	
1) 자력상환	①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2) 신용회복위원회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 할 계획이다.
3) 법원	③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④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신청
4) 모름	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 대부업 이용여부

□ 대부업 이용여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2012년 분석에 있어서는 직업, 연체 여부에 대한 변수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에 있어서는 무직에 비해 회사원은 5% 유의 수준으로 대부업 이용확률이 약 34.3%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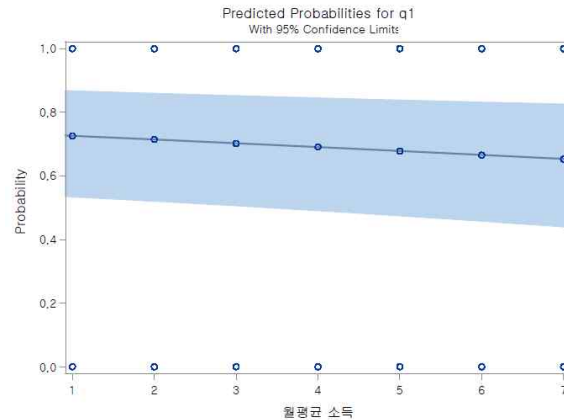
○ 또한 공무원은 무직에 비해 44.6%포인트, 대학(원)생은 63.4%포인트 5% 유의수준으로 이용확률이 저하

○ 연체자는 정상거래자에 비해 5% 유의수준에서 22.7%포인트 이용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대부업 이용자가 신용불량자보다 정상금융거래자가 주거래 고객인 것을 알 수 있음

□ 2016년 분석에 있어서는 새롭게 추가된 소득에 대해 10% 수준에서 대부업 이용 여부와 유의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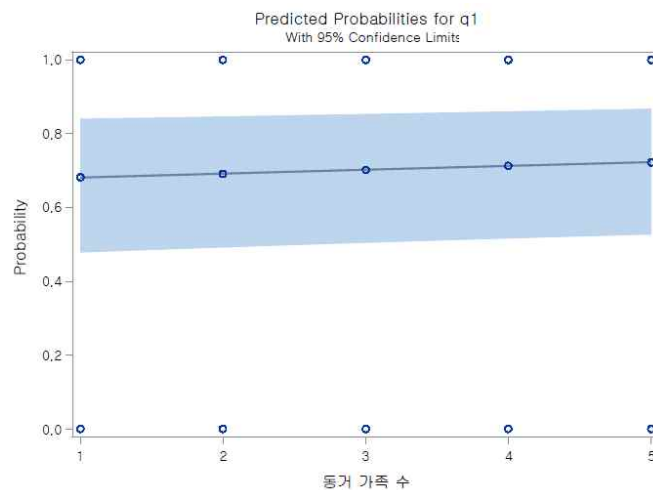
○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월소득과 대부업 이용확률과의 관계 >



- 또한 동거인수도 10% 유의수준에서 대부업 이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동거 가족수와 대부업 이용확률과의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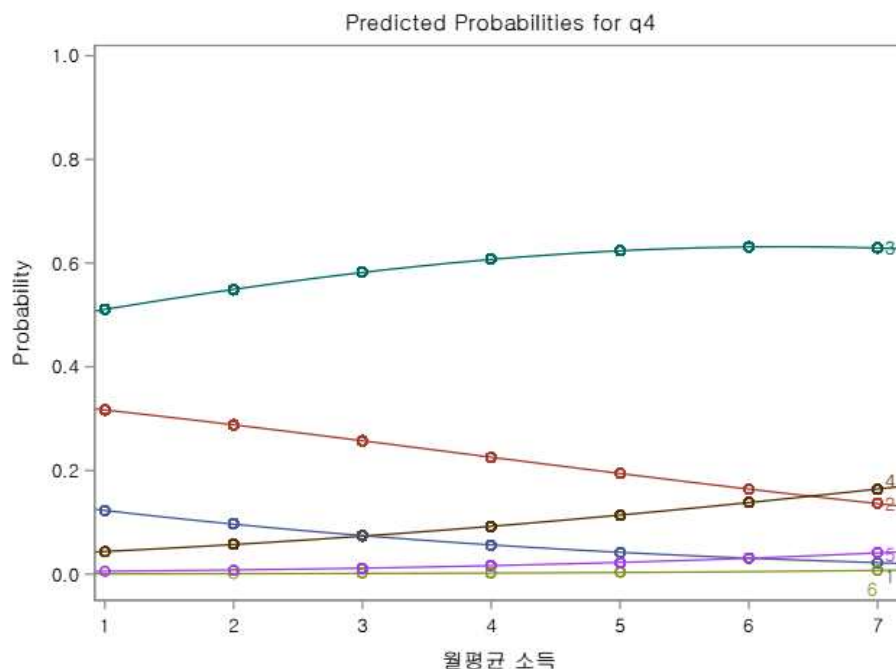
2. 총부채금액

□ 총부채금액은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총부채금액은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총부채금액과의 연관성이 10%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 그리고 연령에서 대해서는 60대에 비해 40대가 총부채와의 관련성에서 10% 수준에서 37.4% 부채와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 월평균 소득과 부채액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부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경향

< 총 부채금액과 대부업 이용 확률과의 관계 >



- 부채액이 아예 없거나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 이용확률은 감소하는데 이는 소액 부채의 경우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대부업을 통해 소액부채를 차입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해석
- 다음으로 부채액이 5백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액

- ☐ 2012년 분석결과, 결혼여부와 회사원,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대해서만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2016년 분석결과는 추가된 소득과 동거인 수에 대해 각각 1% 수준과 5%수준에서 유의
- 성별, 연령 등 모든 변수에 있어서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계층이 대부업체로부터 신규차입

4. 대부업 평균 이자율

- ☐ 대부분의 결과에서 유의성이 기각되었음
- 대부업에 대한 이자율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을 준수하고 있고 따라서 조사목적인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가능성과 이자율과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남

5. 차입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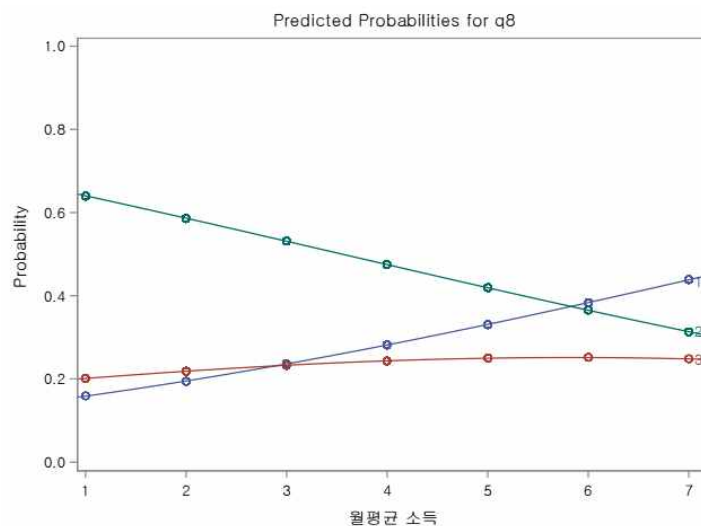
- ☐ 2012년 결과는 학력과 기혼여부, 2016년 결과는 기혼여부에 대해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음
- 성별로는 남녀 모두 생계형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생활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만 2016년에는 생계형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대신 오락 등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차입하는 비중이 증가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생계를 위한 대부업 이용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3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에 비해 오락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2012년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을 위한 대부업 차입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6년에는 전반적으로 오락을 위한 차입이 감소하고 생계를 위한 차입비중이 증가한 것이 특징

6. 자금의 사용처

- 2012년 결과는 일부 학력과 결혼여부에 대해서 유의한 반면, 2016년 결과는 일부 직업과 소득, 결혼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 자금사용 용도 변수와 5% 유의수준에서 유의

< 자금 사용처와 월평균소득과의 관계 >



- 소득변화와 자금사용용도를 살펴보면 1) 사업자금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2) 생활자금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3) 대출상환 등 금융기관 채무와 관련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전반적으로 2012년과 2016년을 비교할 때 거의 모든 변수에서 사업자금을 위한 차입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생활자금을 위한 차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

7. 대부업 선택요인

- 대부업 선택요인을 살펴보면 2012년 결과 거의 모든 변수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은 반면 2016년 결과는 성별, 연령에 있어서 유의
- 2016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자의 50%, 여자의 45%가 대출의 신속성으로 대부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남자의 37%, 여자의 39%가 이자율을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성과 소비자들이 타 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로 인해 금리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8. 대부업을 알게 된 경로

- 대부업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2012년 분석의 채무불이행 여부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을 뿐 대부분의 변수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았음
- 이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있어서 대부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9. 대출상담 금융기관

☐ 대출상담 금융기관과 대부업 이용과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

- 대부업 이용 이전 어떠한 금융기관과 대출에 대해 상담하였던 간에 그 결과는 대부업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10. 타 기관 상담 후 이용 이유

☐ 타 금융기관 상담 후 대부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 분석 결과 채무불이행 여부만 유의

-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절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 상담 후 대부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11. 상담하지 않고 이용한 이유

☐ 타 금융기관과 상담하지 않고 대부업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2012년 분석에서는 채무 불이행 여부만 1% 수준에서 유의

- 그러나 2016년에는 채무불이행 여부와 대부업 이용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2012년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12. 채무상환 방법

☐ 채무상환방법에 대해서는 2012년과 2016년 모두 채무불이행 여부와 채무상환방법 사이에 1% 수준에서 유의

-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2%, 금융채무 이행자는 97%가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할 확률이 있음
- 이는 설문조사가 대출이 실행된 직후에 이루어져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대해 과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13. 대부업의 부족한 점

- 대부업의 부족한 점과 대부업 이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2016년 기혼여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 대부업 이용자의 상당수가 생활자금 대출인 탓에 대부업 이용의 불편 정도는 대부업 이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4. 대부업의 좋은 점

- 대부업의 좋은 점과 대부업 이용과의 분석에서는 2012년 분석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2016년 분석에서는 결혼여부가 유의
- 2012년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 신속한 대출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53%, 여성의 경우 49%가 대부업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50대까지는 신속한 대출이라 응답한 사람이, 60대에는 신용도, 대출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확률이 커짐

제4장. 결론

- 본 보고서는 매년 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이용실태조사를 기초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특징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의 기초특성을 활용하여 분석

- 대부업 이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 분석결과에서는 직업, 연체여부가 유의
- 사용용도가 생활자금인 경우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증가
 - 대부업 이용자중 20~30대 비중이 높아 과소비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상이
 - 즉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과소비 등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이며
 - 신용카드에 비해 편리성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대부업의 경우에는 과소비에 대한 지출보다는 타 금융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반면 대부업 이용경로, 대출이자율 등은 대부업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미국과 영국의 페이데이론, 일본의 대금업 이용자의 이용형태와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의 페이데이론 이용자는 일본 및 우리나라의 이용자에 비해 학력, 소득 등에 있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남
- 대부업 시장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건전한 생활자의 단기간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시장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금 조달환경 개선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대부업 시장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만큼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대부업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리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임

□ 과도한 금리 인하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금리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과거 대부업은 높은 대출 금리를 배경으로 여타금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어왔음

- 그러나 현재 대출상한금리가 27.9%로 낮춰져 있는 현실에서는 과거와 같이 높은 이익을 향유하기 어려움

- 이대기(2016)의 연구에 따르면 2013~2014년 평균 대부업의 원가금리는 26.04%로 상한금리와 1.86%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

- 대부업 이용자가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비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여건에서도 대부업의 자금공급은 줄어들 수 있음

- 또한 과도한 상한금리 인하는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의 자금공급을 더욱 축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중간 신용자 시장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우선 상환능력 미비로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저신용, 저소득자들에게는 금융적인 접근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가의 지속적인 보살핌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 대부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부업의 대출이 단기간 긴급자금에 대한 대출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장기대출보다는 단기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 규제가 과다하게 이루어져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시장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에 따른 시장예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은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된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단기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대부업 시장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던 사채업자 중 일부가 일본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소비자금융을 도입하여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재사업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채업자는 기업금융 중심의 자금공급자였으며 가계대출시장은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정보생산의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비용대비 수익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실화 심화로 기업대출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가계대출의 틈새시장으로 대부업 시장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대부업 시장의 성장은 그동안 금융거래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저신용자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편리성, 익명성 등이 강조되어 필요 이상으로 자금 수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과다채무자를 양성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업은 최근 들어 저신용자에 대해 고금리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고금리가 연 39%에서 연 27.9%로 10%포인트 이상 하락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TV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소위 골든타임에 대한 광고가 제한을 받고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이 강화되는 등 대부업의 영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개수수료 상한 제시행,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등으로 대부업 시장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업 이용자의 니즈 및 그 특성을 파악하여 여타 금융기관 이용자와 다른 대부업 이용자만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여타 금융업과의 차별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나라 대부업 대출과 유사한 페이데이론³⁾, 소비자금융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특징을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

3) 페이데이론은 비제도권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약탈적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업과 약간은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대부업과 비교대상으로 간주하였다.

하고 이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영국의 페이데이론, 일본의 소비자금융이용자의 이용실태 등 주요국의 대부업 및 대부업 유사업종 이용자에 대한 이용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특징을 설명한 후, 기본 프로빗모형과 순차형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대부업 이용실태조사에 기초한 대부업 이용자의 특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제2장. 해외주요국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특징

1. 미국 페이데이론

1) 미국 페이데이론의 특징

페이데이론은 높은 이자율로 개인들이 단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는 서비스이다. 먼저 페이데이론 이용자들은 대부분 빌리고자 하는 금액에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빌리고자 하는 날짜와 함께 적어 수표(check)로 제출한다. 페이데이론 업자는 그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기입되어 있는 날에 맞춰 돈을 지급하고 이용자의 다음 월급날에 대출금을 회수한다. 페이데이론의 차입기간은 평균 30일 이내이고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면 상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은 대부분 1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이다. 연방 대출법(Lending Act)에 따르면 페이데이론 업자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것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미 페이데이론 업자들의 약탈적인 행태가 알려져 있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 한편 대부분의 페이데이론 이용자들은 낮은 소득과 저신용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데이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 1,200만명이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며, 평균적으로 이용자는 375달러 씩 8회 정도 대출을 받고 1년에 이자로 520달러 정도를 지불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원래 페이데이론의 목적인 긴급한 일이나 사고에 쓰는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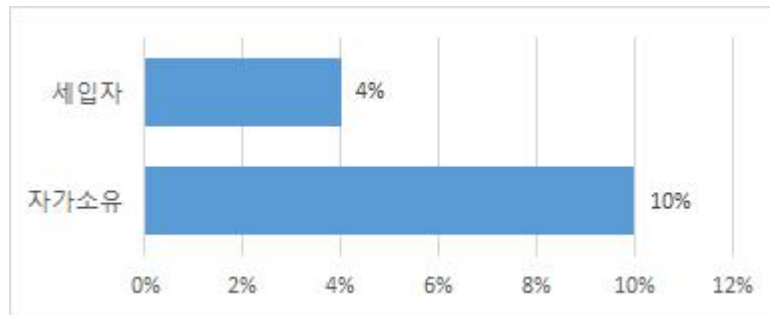
이 아닌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며 평균적으로 이용자들은 1년에 5개월 정도 페이데이론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용자들이 돈이 부족하거나 페이데이론을 이용하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81%의 이용자들은 우선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출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룰 수 있는 지출은 미루고, 친지,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자신의 소장품을 팔아 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법적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주에서는 페이데이론 사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페이데이론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면 더 이상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The Pew Charitable Trust가 2012년에 조사한 페이데이론 이용관련 보고서(Who Borrows, Where They Borrow, and Why)에 기초하여 미국 페이데이론의 이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Pew의 조사에 따르면⁴⁾ 2010년 미국성인인구의 5.5%는 페이데이론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중하위 소득계층과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및 연령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페이데이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52%가 여성이며, 55%는 백인이다⁵⁾.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성 및 소수인종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인식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가 소유자의 경우 4%가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는 반면, 세입자는 10%가 페이데이론을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생활이 안정된 자가 소유자보다 세입자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입자와 임대인 집단의 연령분포와 관련 있다. 즉 페이데이론을 많이 사용하는 25~49세 연령의 세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마련된 50~69세에 있어서는 세입자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세입자들의 페이데이론 이용률은 소득분배와도 관련이 있다. 한 예로 15,000달러 ~ 25,000달러의 수입이 있는 계층의 11%가 페이데이론을 사용한 반면, 75,000달러 ~ 100,000달러의 수입이 있는 계층은 단지 3%만이 페이데이론을 사용하여, 소득과 페이데이론 이용률과는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Pew Charitable Trusts(2012) 참조

5) 백인의 경우 전체 구성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백인 전체로 보면 이용비중이 가장 낮은 인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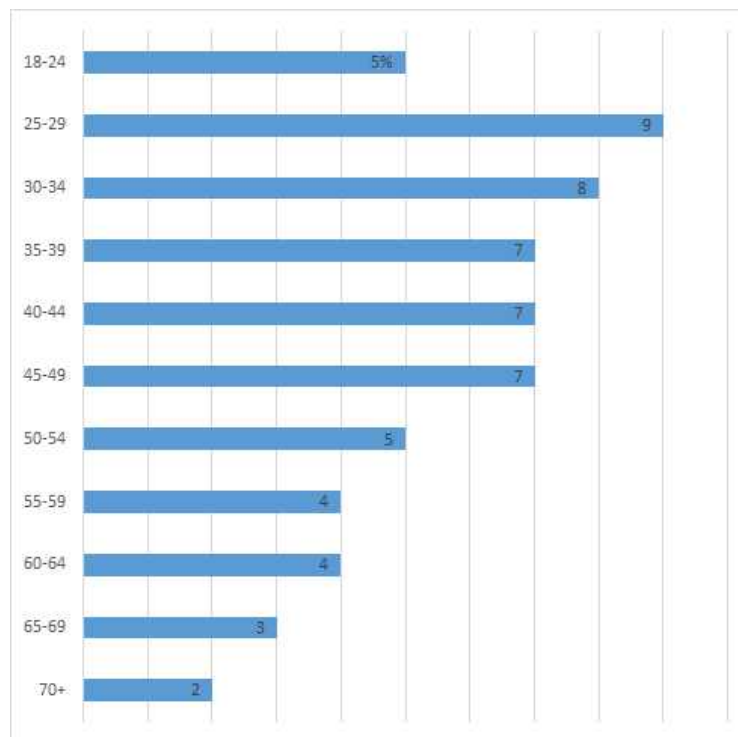
<그림 1>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의 페이데이론 이용률



자료: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한편 페이데이론 이용자를 기본적인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졸미만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5~44세의 비중이 31%, 가구소득이 40,000달러 이하인 경우가 72%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연령대별 페이데이론 이용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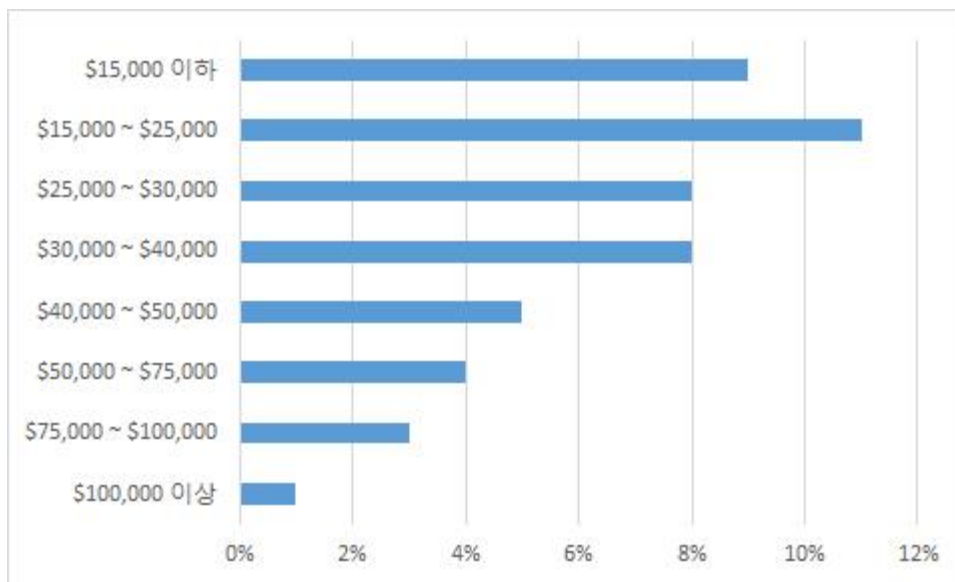
자료: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25~29세의 연령층이 평균치보다 더 높은 페이데이론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18~24세와 50대 이상의 연령층들은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특

히 70대 이상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2%에 불과한 이용률을 보였다. 따라서 소비지출에 대한 수요는 큰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페이데이론 이용이 노령 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 중 소득이 40,000달러 이하의 사람들은 50,000달러 이상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페이데이론 이용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응답자들을 소득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15,000 ~ 25,00달러를 버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11%로 가장 높았으며, 100,000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의 이용률은 1%에 지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15,000달러 이하의 그룹은 페이데이론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은 소득이 늘수록 대출을 줄이는 특징이 있었으며 결국 부채의 상환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페이데이론 업자도 대출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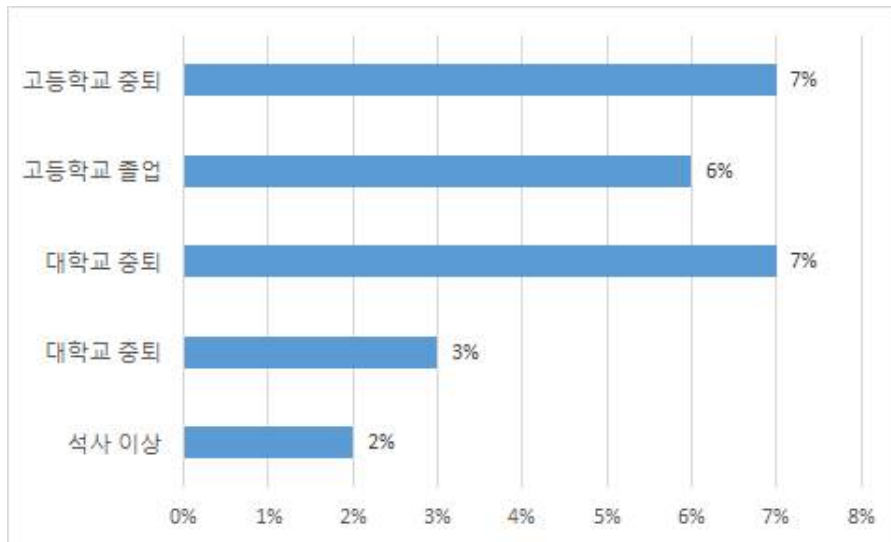
<그림 3> 소득별 페이데이론 이용 비율



자료: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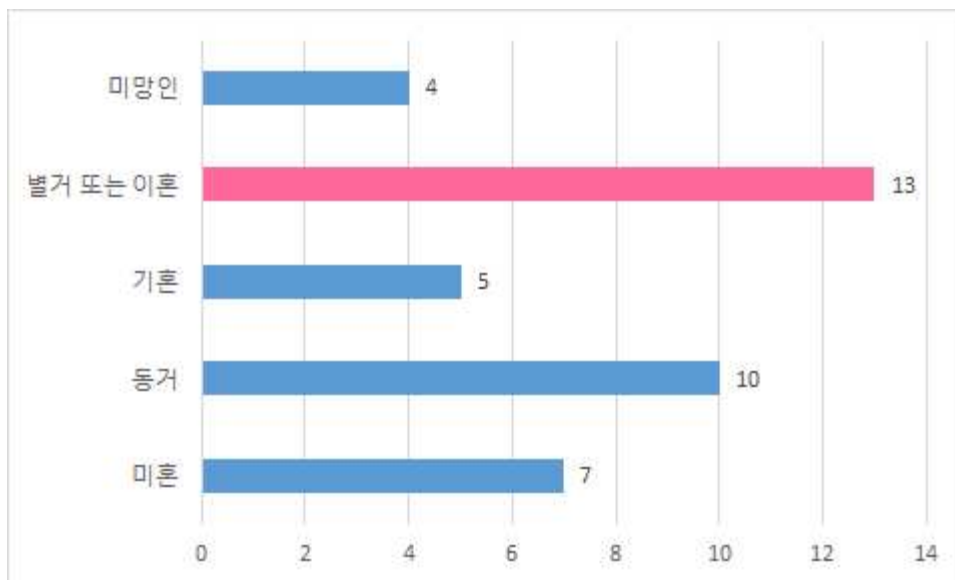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페이데이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페이데이론의 이용률이 떨어졌다. 반면, 4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자들 간의 페이데이론 이용률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그림 4> 학력별 페이데이론 이용 현황



자료: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그림 5> 혼인여부에 따른 페이데이론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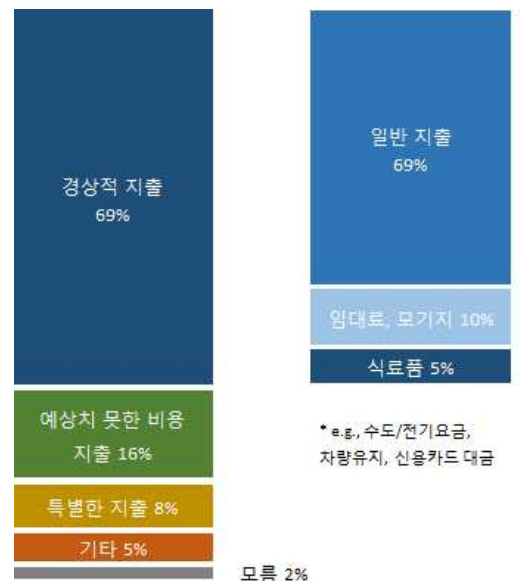
자료: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한편, 흑인 응답자들의 페이데이론 이용률은 다른 인종들의 이용률에 비해 2배가 넘었지만, 대출금액은 1/4에도 미치지 않았다. 그에 반해 백인들의 대출금액은 총 대출금의 55%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이거나 실업자가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페이데이론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취업자가 전체 이용자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자의 경우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페이데이론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혼인 여부에 대해서는 별거 또는 이혼 중인 경우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⁶⁾. 또한 기혼자가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한 반면, 동거(10%)나 미혼자(7%)가 이를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페이데이론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69%가 생활비 조달을 위해 페이데이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단지 19%만이 특별한 사고나 사건 때문에 페이데이론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이용자가 생활비 조달이 가장 큰 이용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페이데이론의 사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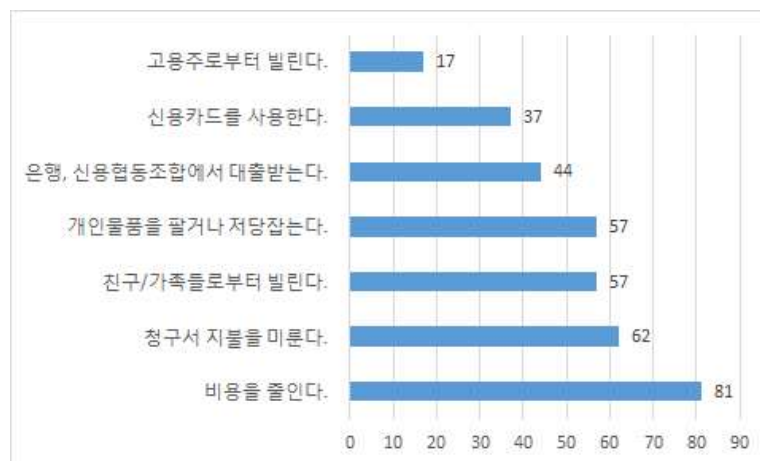
자료: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일반적으로 페이데이론 서비스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을 위해 차입을 하는 생계형 차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규제당국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페이데이론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높은 신용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주(州) 단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페이데이론 이용자들은 한번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페이데이론을 이용한다고 한다. 페이데이론의 사용처를 일상생활과 사건, 사고, 긴급한

6) 별거 또는 이혼 중인 인구의 13%가 페이데이론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용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⁷⁾ 69%가 일상생활을 위해, 16%가 사건, 사고 때문에, 8%가 긴급한 용도로 페이데이론을 이용한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공과요금 등의 지출이 53%, 임대료 등이 10%, 식료품 구입이 5%에 달해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캔자스 시티의 FDR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페이데이론의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이 반복적으로 빌리는 고객들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반복적인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워싱턴 주는 1년에 8번 이상 페이데이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페이데이론 업체가 수익이 악화되어 워싱턴에서 지점 30여곳을 폐쇄하였다. 이처럼 페이데이론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면서 업계 내에서는 부채 상황을 4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재정계획을 마련토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오히려 자주 페이데이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장려하고 심지어 가장 큰 온라인 페이데이론서비스 업체는 이용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7> 페이데이론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응책



자료: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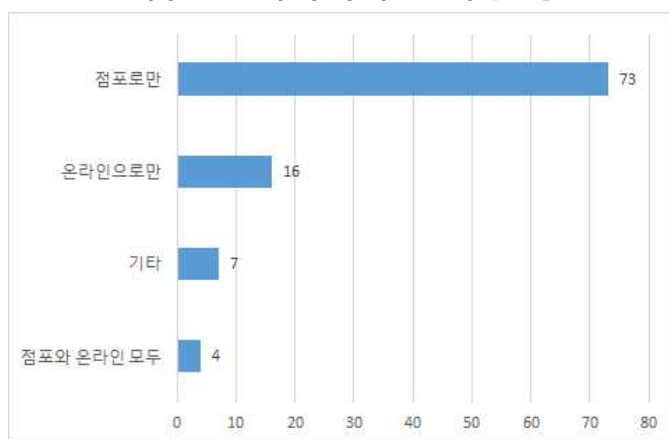
다음으로 다른 요인을 통제할 때, 어떤 인구 특성이 대출이용에 관한 예측척도가 되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자가 소유자보다 세입자들이 57%만큼 페이데이론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며, 40,000달러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

7) 일상생활은 케이블TV 구독, 모기지 상환, 전기세, 식료품 구입 등 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 사건, 사고는 차량사고, 자동차 수리비 등의 사고복구를 위한 지출, 긴급한 용도는 추수감사절 선물, 축제일 선물 등 특별한 날에 대한 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은 사람보다 62%만큼, 대출미만이 대출이상보다 82%만큼 페이데이론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다. 이와 더불어 독신, 동거, 기혼, 사별한 사람들보다 이혼 한 사람들이 103%만큼 페이데이론 이용확률이 높으며, 흑인일 경우 여타 인종에 비해 105%만큼 페이데이론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만약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고 소액 대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주로 이용자들은 81%의 이용자가 지출을 줄인다고 응답했으며, 62%의 이용자들은 청구에 대한 지불은 늦추며, 57%의 이용자들은 친구/친지에게서 돈을 빌린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이 페이데이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융통할 생각을 대부분이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출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해 지출을 줄인다. 그러나 이들이 대출을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페이데이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행과 같이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신용도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페이데이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붙는 이자와 페이데이론 서비스에 붙는 이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⁸⁾. 다음으로 어디서 페이데이론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73%가 점포를 통해, 16%가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그림 8> 페이데이론 시행 장소



자료: Pew Safe Small-Dollar loans Research Project, 2012.

8) 페이데이론의 이자율은 2주당 15%이며 신용카드의 이자율은 연 15%이나 페이데이론 이용자는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2)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

지난 십년간 애리조나, 아칸사스, 몬테나, 뉴햄프셔 등을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정책을 부활하였다. Pew(2012)에서는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를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가. Permissive States(허용형 규제)

- 1) 연간 391%~521%(2주 간 15%~20%)에 해당하는 금리는 허용됨.
- 2) 페이데이론 점포가 이러한 주들의 곳곳에서 영업 가능하며, 미국인의 대부분이 (55%) 이러한 형태의 규제를 허용하는 28개 주에 살고 있음.

나. Hybrid States(혼합형 규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규제를 시행함.

- 1) 대출원금의 10% 금리상한 설정. 대부분의 주에서 보다 낮은 금리이지만 여전히 연간 세 자릿수의 고금리를 허용하는 것임.
- 2) 대출 이용자 당 대출계약 수의 제한 설정. (예/ 이용자 당 연간 최대 8회 대출)
- 3) 복수 기간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금으로 이전 기간의 대출 상황을 가능하도록 허용함.

다. Restrictive States(제한형 규제)

- 1) 페이데이론이 주에서 사라지도록 할 만큼 금리상한을 낮게 설정(연간 36% 수준)하며 이러한 주에서는 페이데이론 점포를 찾아볼 수 없음.
- 2) 29%의 미국인이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는 14개주 및 콜럼비아 지역에 거주함.
- 3) 점포에 대한 규제가 페이데이론 이용자로 하여금 규제영역 밖의 온라인 대출을 성행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우려가 존재할 수 있음.

그러나 Pew의 조사에 따르면 제한형 규제를 시행하는 주는 허용형 규제를 시행하는 주보다 점포를 통한 페이데이론 이용건수는 75%나 낮게 나타나는 반면, 온라인 대출 이용은 근소하게 늘어난다. 또한 강력한 법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주에서 페이데이론 이용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페이데이론을 제한하는 법으

로 인해 인구 만명 당 페이데이론 점포수는 393개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이들 중 5%만이 온라인을 비롯한 다른 채널을 통해 페이데이론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95%는 페이데이론을 이용하지 않았다. 즉, 페이데이론 점포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주에서는 95%의 잠재적 이용자들이 페이데이론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규제의 강도와 관계없이 페이데이론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며 다만 규제 여부에 따라 이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Pew는 인구특성 통제 하에 각 주(州)법의 형태가 페이데이론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허용형 규제와 혼합형 규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페이데이론 이용률은 제한형 규제를 실시하는 지역보다 1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거주지의 규제 형태가 개인의 페이데이론 이용률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Better Business Bureau의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데이론 업체들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불만의 증가는 대체로 온라인 대출과 관련한 것이며, 점포를 통한 페이데이론 이용에 대한 규제가 이용자들의 불만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Exhibit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w의 분석에 따르면 주(州)법의 규제는 대출 공급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페이데이론 업체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에 대한 건수는 제한형 규제 지역은 29%, 허용형 규제 지역은 55%, 마지막으로 혼합형 규제 지역은 14%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인구비중과 거의 유사하다. 규제가 대출이용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다른 증거는 워싱턴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워싱턴 주에서의 페이데이론 관련 불만은 증가 추세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최근 이루어진 허용형 규제에서 혼합형 규제 형태로의 변화에 의해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규제가 변하지 않았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76% 증가했으며, 주(州)법의 변화가 있었던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의 증가율은 50%였다. 규제 형태의 변화가 있었던 아칸서스주나 마인주, 미주리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미국 페이데이론은 단기 신용상품으로서 긴급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Pew의 분석 결과는 10명 중 7명의 대출 이용자는 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위해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며, 6명 중 1명만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이용하였다. 즉, Pew에 따르면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페이데이론을 임시적인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전통적인 페이데이론 영업 모

텔이 근본적으로 대부업체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반복적인 대출 이용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Pew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페이데이론은 성, 인종, 민족,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경계를 넘어 대부분의 사회계층을 가리지 않고 이용되는 상품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발견은 페이데이론을 포함한 연복리 400%를 넘는 2주짜리 대출 상품이 만성적인 현금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는 데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는 주로 주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명시적인 법정 규제를 채택한 주에서는 95%의 잠재적 페이데이론 이용자로 하여금 온라인 등을 통한 다른 페이데이론 채널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예 감소시켜 정책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규제당국이 점포를 없애는 규제를 시행했을 때 페이데이론 이용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영국 페이데이론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페이데이론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도 개시되었다. 영국 이용자들이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자동차나 의료 사고, 집수리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급여일 이전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페이데이론과 일반 가계신용대출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가계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 소유 여부 및 고용사실 확인이 필요한 반면, 페이데이론은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통상 1~31일 동안 100~1,250파운드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100파운드당 25~35파운드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상환실적이 우수하고 거래빈도가 높은 차입자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차입이 가능하다. 2008년 중 페이데이론 대출 규모는 9억 파운드 수준이었으나 2011년 중 740만~820만건의 신규 대출이 발생하여 금액 기준으로 영국의 페이데이론은 2011년 기준 2.0~2.2조 파운드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출금 100파운드당 수수료는 14~51파운드 사이에서 결정되고, 평균 25파운드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영국 페이데이론 시장에서 3대 대형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규모기준으로 55%, 금액기준으로 57% 수준이며 따라서 영국시장은 대형업체에 의해 좌우되는 과점적 시장이다.

지난 12개월간 Citizens Advice Scotland(CAS)는 페이데이론 이용 경험에 대한 공공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Good Practice Customer Charter’ 라는 자율규제를 도입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이용한 이용자이다. 먼저 대출액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구간에서 200~499파운드(38%), 그 다음 높게 나타난 것이 500~999파운드(27%)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은 대출 실행 시점에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섯 명 중 한 명은 실업상태였으며 잠재적으로 단기적인 금전문제를 가진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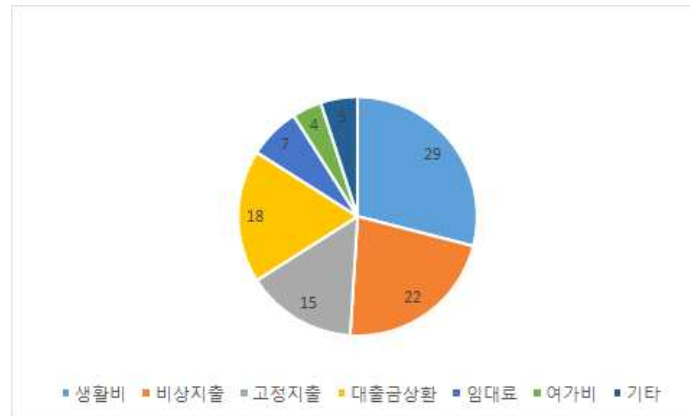
<그림 9> 페이데이론 대출액



자료: Citizens Advice Scotland(2013)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출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에 대한 정보를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75%의 응답자들은 상환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며 대출과 관련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페이데이론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생계비(식품이나 연료 구입)였으며 긴급한 지출이 22%, 여타 대출의 상환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페이데이론이 생계비 등 필수적인 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지출, 오락 및 사치품의 구입에 사용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가 있다. 다만 페이데이론이 과다하게 시행됨으로써 이용자들이 상환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페이데이론 이용 목적



자료: Citizens Advice Scotland(2013)

<그림 11>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직업



자료: Citizens Advice Scotland(2013)

다음으로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50%가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이며 다음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17%, 실업자가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페이데이론 업체가 이용자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상환이 가능한 직업군에 대해서만 대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ood Practice Customer Charter’에서는 페이데이론 이용자로 하여금 다음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1) 대출 신청서마다 상환능력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신용분석을 실시

- 2) 자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빌리는 돈의 금액과 계획이 모두 확실하고 그리고 뚜렷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시행
- 3) 고객을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상대하며, 빚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조

이외에 CAS는 조금이라도 무책임한 페이데이론의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각 주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업자

실시간 신용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개의 loan이 발행 되고 그것이 신용 평가에 영향을 끼치기 전까지는 다른 loan이 연속적으로 발행 되게 해서는 안 됨

CAS가 주최하는 미팅에 참여하도록 하여 Lender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법 위반행위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영국 정부

경제 전문가들을 모아 독립적인 신용지출 조사기관을 만들어서 1파운드당 이자로 지급 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설정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에 의거해 전문가들이 정부에게 권고사항을 공지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Continuous Payment Authorities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자들에게 FCA의 법을 어기는 순간 자동적으로 벌금을 부과

페이데이론 업자들이 이용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

페이데이론의 상환기간 연장을 어떠한 loan에 대해서도 1회로 제한

스코틀랜드 정부

고등학교 입학 시 지역신용조합 사용 장려와 저축을 고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들어있는 신용조합(Credit Union) 계좌를 부여

스코틀랜드 의회

시의회 산하에 있는 컴퓨터, 시도서관, 문화센터와 같은 곳에선 페이데이론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

은행

고객들의 권리를 위해 은행직원들에게 Continuous payment authority를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을 강화

4. 일본 대금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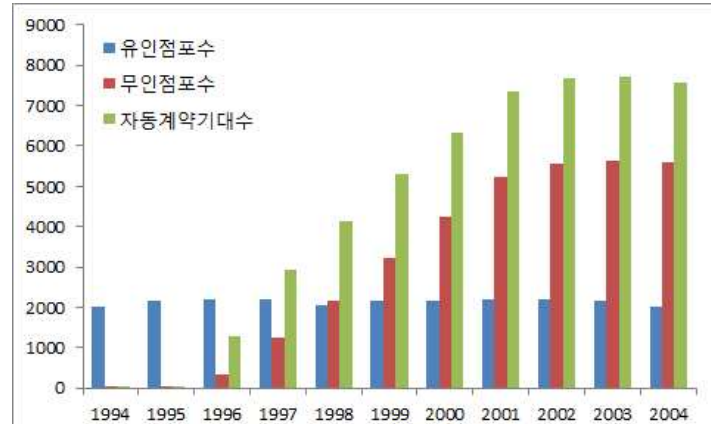
일본에 있어서 대금업은 개별업법에 의해 규정된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신용금고 등)를 제외한 금전의 대출과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대금업은 세계대공황 이후인 1929년 일본히루야은행(日本晝夜銀行)이 월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페이데이론을 실시한 것이 최초이다. 당시 월급생활자는 도시의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따라서 은행에 있어서 페이데이론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상품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도시에 거점을 둔 중소은행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현재와 같은 대금업의 기원은 1960년 전후에 시작된 단지(團地)금융에서 찾을 수 있다. 단지금융은 당시 고소득층이 중심이었던 아파트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출해주는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크레디트센터, 모리타(森田)상사 등이 단지금융에 특화된 금융회사이다. 그리고 현재 일본 대금업계를 선도하는 산요(三洋)신판(1959년, 당시 산요상사), 아콤(1960년, 당시 마루이토), 프로미스(1962년, 당시 간사이(關西)금융), 다케후지(武富士)(1966년, 당시 후지상사) 등이 이때 설립되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월급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 1970년대 셀러리맨금융(사라 킨)이 일반화되었다. 이 당시 일본 대금업의 영업형태는 이용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신청을 받아, 직접 직원이 대출금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는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는 목적이외에도 이용자의 주거지 확인 및 본인 확인이라는 심사기능을 겸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형태는 영업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대출규모를 늘리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 대금업의 영업형태도 소규모 배달형에서 대규모 점포형으로 서서히 이행되었다. 대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규모대출에 따른 여신심사기능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연체율이 상승하게 되자 1972년 대금업자의 자발적 수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기관인 랜더스엑스체인지(lenders exchange)가 설립되었다. 그 후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전국 규모로 관리됨에 따라 이후 일본대금업은 용이하게 개인에 대한 스코어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 대금업은 1978년 시점에 대금업자(소비자금융전문업자)수 약 22,000사, 점포수 약 30,000사, 대출잔고 약 4,200억엔 규모로 성장하였다.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처럼 경쟁이 심해지면서 여신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시행되는 공급자 측면의 문제와 더불어, 과다대출로 인한 다중채무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국회를 통해 제기되면서 대금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1983년 대금업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법이 성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자상한을 규정한 출자법이 개정되어 대금업체의 상한금리가 109.5%에서 73.0%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와 더불어 대금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이 강화되면서 대금업자수는 1983년 약 23만사에서 1984년 3만3천사로 급감하였으며 대출잔고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일본 대금업은 1990년대 초 일본 버블붕괴를 계기로 침체기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1993년 편리함을 무기로 한 무인자동계약기의 도입으로 1994년 국민소득대비 신용대출비율이 사상 최대인 15.2%에 달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12> 일본 대금업자의 유인, 무인점포수 및 자동계약기 대수 추이



자료: 일본 소비자금융연합회 『TAPALS 백서 2004』, 2005

서서히 대금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던 1987년부터 아콥, 프로미스, 산요신판 등 대형 3사는 주식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출자법상의 상한금리인 40.04%이하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업무를 다각화하는 등 상장에 대한 비판을 회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9년 중소기업대출을 주 업무로 하던 대금업자로 인한 상공(商工)론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일본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실채권 처리로 인해 대출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은행들이 담보가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결국 이들은 대금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들 대금업자는 중소기업에게 평균 40%의 대출 금리를 요구하고 이에 더해 근보증(根保證)제도⁹⁾를 이용하여 보증인에게 폭력, 협박 등을 통해 대출금을 강제로 회수함에 따라 이것이 사회문제로 까지 발전하였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대금업관련 3법(대금업법, 출자법,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대출상한금리를 연 40.004%에서 29.2%로 인하하는 등의 대금업 개혁을 추진하고 금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인정되었던 간주(看做)변제규정¹⁰⁾(미나시변제규정)을 폐지하였고(2010년 6월 시행) 이후 일본 대금업은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일본은 금융청이 매년 “대금업 이용자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닛케이리서치의 “금융행동조사” 등 다양한 기관이 금융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금융청의 “대금업 이용자에 대한 조사·연구”와 닛케이리서치의 “금융행동조사”¹¹⁾의 분석결과

9) 근보증이란 당초 채무액이상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인에 대한 연락 없이 보증계약금액까지 추가대출을 실시하여 만약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연대보증인의 채무액은 당초 채무액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10) 간주변제규정이란 대금업의 금리를 규정하는 출자법상의 상한금리가 일반 금전대차에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형사나 행정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지칭한다.

를 토대로 일본 대금업이용자의 이용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금융행동조사 대상자의 구성

			데이터 구성비(%)		
			(n=1,452)	분석대상자 전체 대금업이용자 (n=123)	비이용자 (n=1,329)
대금업자에 제시하는 정보	성별	여성의 비율	46.1	39.8	46.7
	연령	20대	5.2	5.7	5.1
		30대	20.5	22.0	20.3
		40대	32.1	39.0	31.5
		50대	19.4	23.6	19.0
		60대	16.5	8.1	17.3
		70대	6.3	1.6	6.8
	직업	계약, 파견사원, 촉탁사 원	5.4	6.5	5.3
		개인경영, 자영업, 농업	12.5	13.0	12.5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	20.2	21.1	20.2
		주부	13.8	12.2	14.0
		무직	12.9	2.4	13.9
		민간 또는 공적기관의 정규직	35.1	44.7	34.2
	가족구성	자녀가 없는 독신	14.2	12.2	14.4
		자녀가 있는 독신	2.8	2.4	2.9
		자녀가 없는 기혼	27.3	10.6	28.9
		자녀가 있는 기혼	55.6	74.8	53.9
대금업자에 제시하지 않는 정보	주택소유	자가거주	75.9	68.3	76.6
	비저축지향	소비형	32.2	54.5	30.1
	신용카드이 용 현황	1년에 0회	20.7	2.4	22.4
		1년에 1~6회	10.1	4.1	10.7
		1년에 12~36회	41.7	57.7	40.3
대금업자에 제시하지 않는 세대 정보		1년에 52회 이상	27.4	35.8	26.6
	세대년수입	300만엔 미만	20.4	17.1	20.7
		300~500만엔	26.8	23.6	27.1
		500~700만엔	26.9	24.4	27.1
		700~1000만엔	17.9	20.3	17.7
		1000만엔이상	8.1	14.6	7.4
	세대금융자 산	300만엔 미만	48.9	72.4	46.7
		300~600만엔	15.6	10.6	16.0
		600~1000만엔	13.7	8.1	14.2
		1000~2000만엔	10.5	5.7	11.0
		2000만엔이상	11.3	3.3	12.0
	주택담보대 출 유무	주택담보대출 보유	40.3	56.1	38.8

자료: 닛케이리서치 「금융행동조사」, 田口(2013)에서 재인용

11) 2011년 금융행동조사에 대해서는 田口(2013)을 참조하였다.

넛케이의 금융행동조사는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기관 이용 상황에 대한 조사로 198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조사는 25~7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개정대금업법이 시행된 1년 후에 실시된 조사이다. 금융행동조사는 금융청조사와 달리 대금업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조사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자금수요의 유무, 비이용자가 대금업자에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그 신청결과는 어떠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세대별로 연수입, 금융자산보유액, 주택대출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동 조사는 과거 1년간 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② 은행의 카드대출, ③ 은행계 대출회사의 카드대출, ④ 신관회사의 카드대출, ⑤ 소비자금융의 카드대출, ⑥ 보험회사의 계약자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중 ①,③,④,⑤가 총량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출이다. <표 1>은 속성별 데이터의 구성을 나타낸다.

먼저 대금업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표본에서 여성의 비율은 46.1%인 반면, 대금업 이용자 중 여성의 비율은 39.8%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40대의 비중이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금업 이용자에 있어서는 이 비율이 39.0%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 대금업 이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용자가 가장 높고, 30대, 50대의 순이다. 직업에 있어서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의 비중이 전체 샘플에서는 35.1%에 불과했으나 대금업 이용자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약 44%로 증가한다. 이처럼 대금업 이용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무직 등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대별 연간소득은 300만엔 이하가 20.4%. 300만엔~500만엔이 26.8%, 500~700만엔 미만인 26.9%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연간소득에 있어서 300만엔 이하의 저소득 구간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700만엔 이상의 상위소득 구간 비율이 전체 대상자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대금업의 대출 공급이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田口(2013)는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대금업 이용에 대한 수요를 연간 소득, 고용형태, 연령 등 개인 속성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금업에 대한 자금수요 y_i^* 을 개별 속성(X)의 함수로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금업의 자금수요를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관찰하는 것은 y_i 가 1일 경우에는 대금업 이용자, y_i 가 0일 경우에는 대금업 비이용자로 가정한다. 이처럼 y_i 가 0, 1

의 수치를 취하기 때문에 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하지 못하고 확률분포(P_i)를 이용한 다음 식을 사용한다.

$$P_i = \text{Prob}(y_i = 1) = F(a + bX)$$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각각의 속성에 따라서 몇 %로 대금업 이용자가 될 확률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먼저 직업 및 고용형태의 경우 무직은 민간 및 공적기관의 정규직에 비해 대금업을 이용할 확률이 5% 유의수준에서 3.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금업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대금업자의 심사 등으로 인해 자금을 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무직 이외의 직업에 대해서는 양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족구성에 관해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에 비해 자녀가 없는 기혼이 대금업을 이용할 확률이 5.7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활비 지출 증가로 대금업에 대한 이용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2> 대부업 이용자의 프로빗 분석 결과

			케이스 1	케이스 2
대금업자에 제시하는 정보	성별	여성의 비율	-0.0293* (0.0164)	-0.0235 (0.0146)
	연령	20대	-0.0094 (0.0235)	-0.0145 (0.0181)
		30대	-0.0092 (0.0135)	-0.0074 (0.0122)
		40대	기준	
		50대	0.0195 (0.0176)	0.0277 (0.0177)
		60대	0.0115 (0.0252)	0.0306 (0.0288)
		70대	0.0169 (0.0524)	0.0507 (0.0698)
	직업	계약, 파견사원, 촉탁사원	0.0234 (0.0314)	0.0161 (0.0271)
		개인경영, 자영업, 농업	0.0065 (0.0192)	0.0042 (0.0171)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	0.0227 (0.0235)	0.0150 (0.0208)
		주부	0.0073 (0.0241)	0.0014 (0.0205)
		무직	-0.0392** (0.0183)	-0.0331** (0.0166)
		민간 또는 공적기관의 정규직	기준	
	가족구성	자녀가 없는 독신	-0.0123 (0.0162)	-0.0104 (0.0162)
		자녀가 있는 독신	-0.0177 (0.0253)	-0.0180 (0.0219)
		자녀가 없는 기혼	-0.0507*** (0.0124)	-0.0412** (0.0113)
		자녀가 있는 기혼	기준	
	주택소유	자가거주	-0.0344*** (0.0162)	-0.0577*** (0.0220)
대금업자에	비저축지향	소비형	0.0617*** (0.0151)	0.0419*** (0.0132)
	신용카드이용	1년에 0회	기준	

제시하지 않는 정보	현황			
		1년에 1~6회	0.0984 (0.0637)	0.0887 (0.0604)
		1년에 12~36회	0.1553*** (0.0344)	0.1476*** (0.0333)
		1년에 52회 이상	0.1867*** (0.0502)	0.1820*** (0.0500)
대금업자에 제시하지 않는 세대 정보	세대년수입	300만엔 미만		0.0353 (0.0260)
		300~500만엔		0.0154 (0.0164)
		500~700만엔		기준
		700~1000만엔		0.0072 (0.0156)
		1000만엔이상		0.0403 (0.0277)
	세대금융자산	300만엔 미만		0.0430** (0.0214)
		300~600만엔		0.0001 (0.0226)
		600~1000만엔		-0.0001 (0.0233)
		1000~2000만엔		기준
		2000만엔이상		-0.0155 (0.0213)
	주택담보대출 유무	주택담보대출 보유		0.0403 (0.0165)
표본수(분석대상자수)			1,452	1,452
log likelihood			-364.297	-347.554
Pseudo R2			0.135	0.175

자료: 田口(2013)에서 재인용

금융청에서 실시하는 “대금업 이용자에 대한 조사·연구(2015)”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로 전국 20대에서 70대를 대상으로 하여 3년 이내 대금업 이용 경험에 있는 자와 3년 이내 경험자 중 현재 차입이 있는 자, 3년 이내 경험자 중 현재 소비자금융으로부터 차입이 있는 자 그리고 차입 경험이 없는 자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분석대상의 비율은 3년 이내 차입경험자가 약 6.9%, 3년 이내 차입경험이 없는 자가 약 9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소비자금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수입, 직업을 기초로 이용목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 이내 차입경험자의 차입목적은 현금서비스와 소비자금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금서비스의 경우 생활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38.1%), 갖고 싶은 물건 구입(28.5%), 신용카드 대금 지급(21.4%) 순이다. 그리고 연간수입이 낮을수록 생활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비율이 높고, 직업별로는 개인자영업자, 파견 및 계약사원 등 신분이 불안정한 직업의 생활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차입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소비자금융업 이용에 있어서는 생활비 부족분의 충당(42.8%), 갖고 싶은 물건의 구입(21.8%), 유흥비의 부족(20.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금서비스에 비해 생활비 조달을 위한 차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연수입과 이용목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간수입이 낮을수록 생활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소비자금융이

현금서비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유흥비나 제품구입을 위한 차입의 경우 어느 정도 신용도가 뒷받침되는 현금서비스가 소비자금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는 전문직, 농림어업, 파트타임 종사자에 있어서 생활비 충당을 위한 대출비중이 현금서비스보다 소비자신용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는 직업 및 수입이 불안정한 취업자의 경우 현금서비스보다 대출기간이 긴 소비자신용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현금서비스와 소비자금융의 이용 목적이 약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용의 편리성 및 심사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용목적

	샘플 수	생활비 (광열 수도 등) 부족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나 돈이 부족해서	신용 카드 이용 대금 지불을 위해	유흥 비가 부족 해서	관혼 상제 지출을 위해	의료비 지출	다른 대금업 자의 차입 자금 상환	도박 자금의 부족	주택 대출 자금 상환	기타
3년 이내 차입경험자 전체	2046	38.1	28.5	21.4	16.9	6.5	5.6	4.8	4.8	4.1	7.6
0엔	170	44.7	27.1	19.4	13.5	2.4	3.5	3.5	3.5	1.8	10
1~300만엔 이하	962	44	26.8	21.9	13.9	6.7	6.1	4.9	3.6	3.6	7
301~500만 엔 이하	503	33.4	31.8	22.3	17.5	8.7	6	4.4	7	3.8	4.8
501~1000 만엔 이하	372	28.2	29	19.9	25.5	5.4	5.4	6.2	5.4	6.7	9.9
1001만엔 이상	39	20.5	30.8	20.5	15.4	2.6	0	0	5.1	5.1	28.2
회사원	854	36.2	28	21.3	21.1	5.2	4.8	4.7	5.4	4.6	6.8
경영자 및 임원	73	37	32.9	27.4	5.5	8.2	2.7	2.7	5.5	9.6	
개인사업자	672	46	24.3	23.4	11.5	6.8	5.1	5.4	4.3	5.2	8.2
공무원	92	21.7	32.6	17.4	16.3	3.3	2.2	4.3	6.5	4.3	14.1
전문직	57	35.1	36.8	19.3	15.8	12.3	7	1.8	1.8	0	3.5
농림어업	30	30	30	20	13.3	3.3	3.3	3.3	0	0	6.7
파견, 계약 사원	178	50.6	30.9	24.7	12.9	9	3.9	7.3	6.2	4.5	6.7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308	47.7	24	23.1	13.3	7.8	8.1	5.5	4.2	2.3	4.9
전업주부	145	40.7	24.8	17.2	11.7	5.5	6.2	2.8	2.8	2.8	10.3
무직	160	27.5	35.6	22.5	20	6.3	8.8	4.4	4.4	3.1	8.1
학생	35	31.4	34.3	20	22.9	0	8.6	2.9	2.9	14.3	11.4
기타	9	39.1	19.3	0	0	0	0	0	10	9	0

자료: 금융청, 소비자금융 이용자에 관한 조사·연구, 2015.12

<표 4> 소비자금융의 이용목적

	샘플 수	생활비 (광열 수도 등) 부족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나 돈이 부족해서	유흥 비가 부족 해서	신용 카드 이용 대금 지불을 위해	다른 대금업 자의 차입 자금 상환	도박 자금의 부족	관혼 상제 지출을 위해	의료비 지출	주택 대출 자금 상환	기타
3년 이내 차입경험자 전체	582	42.8	21.8	20.3	18.6	11	9.8	8.8	7.6	5.8	4
0엔	29	48.3	24.1	17.2	10.3	6.9	6.9	10.3	17.2	0	6.9
1~300만엔 이하	290	51.4	17.9	17.9	19.7	11	7.2	6.9	7.9	4.8	4.1
301~500만 엔 이하	170	35.3	25.9	22.4	18.8	10.6	12.4	10	4.7	3.5	2.9
501~1000 만엔 이하	89	29.2	24.7	25.8	18	13.5	12.4	12.4	9	15.7	4.5
1001만엔 이상	4	0	50	0	0	0	50	0	0	0	0
회사원	302	37.7	22.8	21.9	19.5	10.9	11.3	11.3	7.3	7.3	2.6
경영자 및 임원	15	33.3	13.3	6.7	6.7	6.7	13.3	6.7	6.7	6.7	6.7
개인사업자	150	45	18	11.3	25.3	10.7	5.3	7.3	4.7	7.3	9.3
공무원	34	41.2	26.5	17.6	17.6	14.7	14.7	2.9	2.9	8.8	5.9
전문직	11	63.6	18.2	18.2	36.4	18.2	0	18.2	9.1	0	0
농림어업	4	50	25	0	50	0	0	0	0	0	0
파견, 계약 사원	47	51.1	21.3	25.5	14.9	10.6	8.5	0	4.3	0	6.4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93	59.1	19.4	21.5	19.4	10.8	5.4	6.5	6.5	2.2	4.3
전업주부	19	42.1	15.8	21.1	15.8	5.3	10.5	10.5	5.3	5.3	0
무직	21	42.9	19	28.6	9.5	19	9.5	14.3	0	4.8	0
학생	15	33.3	33.3	6.7	13.3	6.7	6.7	0	26.7	13.3	0
기타	9	39.1	19.3	0	0	0	0	0	10	9	0

자료: 금융청, 소비자금융 이용자에 관한 조사·연구, 2015.12

제3장. 우리나라 대부업의 이용형태 분석

1.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년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 이용실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개략적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별 대부업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20~30대 이용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 중고령층의 이용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 우리나라 대부업 연령별 이용자 추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남성 (53%)	여성 (47%)
20대	1,625 (28%)	1,250 (32%)	1,106 (23%)	778 (24%)	638 (20%)	1,265 (20%)	1,384 (21%)	709 (20%)	675 (22%)
30대	2,218 (39%)	1,381 (35%)	1,929 (40%)	1,212 (36%)	1,110 (35%)	1,997 (32%)	1,960 (30%)	1,068 (31%)	892 (29%)
40대	1,320 (23%)	872 (22%)	1,201 (25%)	799 (24%)	866 (27%)	1,877 (30%)	1,867 (28%)	999 (29%)	868 (29%)
50대	515 (9%)	372 (10%)	531 (11%)	361 (11%)	496 (16%)	990 (16%)	1,161 (18%)	636 (18%)	525 (17%)
60대 이상	40 (1%)	32 (1%)	43 (1%)	174 (5%)	66 (2%)	112 (2%)	170 (3%)	84 (2%)	86 (3%)
계	5,722 (100%)	3,907 (100%)	4,810 (100%)	3,324 (100%)	3,176 (100%)	6,241 (100%)	6,542 (100%)	3,496 (100%)	3,046 (100%)

자료: 대부업 이용실태 조사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의 95%(2015년 기준)가 고졸 이상이며 대학원 졸업 이상도 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25~64세 연령을 조사한 OECD 자료¹²⁾가 2012년 기준 고졸이 41%, 대졸이상이 42%로 고졸이상 인구가 83%인 것에 비하면 다소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2) 2014 OECD 「education at a Glance」 참조

<표 6> 학력별 대부업 이용자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남성 (53%)	여성 (47%)
초등졸	40 (1%)	41 (1%)	49 (1%)	60 (1%)	54 (1%)	21 (1%)	33 (1%)
중졸	142 (3%)	133 (4%)	117 (4%)	255 (4%)	277 (4%)	142 (4%)	135 (4%)
고졸	2,436 (51%)	1,678 (52%)	1,562 (50%)	3,407 (55%)	3,498 (54%)	1,820 (53%)	1,678 (56%)
대졸	2,053 (43%)	1,350 (41%)	1,338 (43%)	2,368 (38%)	2,518 (39%)	1,392 (40%)	1,126 (37%)
대학원 이상	103 (2%)	73 (2%)	70 (2%)	114 (2%)	128 (2%)	81 (2%)	47 (2%)
계	4,774 (100%)	3,275 (100%)	3,136 (100%)	6,204 (100%)	6,475 (100%)	3,456 (100%)	3,019 (100%)

자료: 대부업 이용실태 조사

그리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주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가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는 정상거래자로 크게 변동 없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 7> 직업별 대부업 이용자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남성 (54%)	여성 (46%)
회사원	2,431 (52%)	1,597 (49%)	1,634 (52%)	3,083 (50%)	3,171 (49%)	1,990 (58%)	1,181 (40%)
공무원	91(2%)	88(3%)	60(2%)	173(3%)	115(2%)	78(2%)	37(1%)
자영업	890 (19%)	682 (21%)	611 (20%)	1,257 (20%)	1,301 (20%)	768 (23%)	533 (18%)
주부	489 (10%)	362 (11%)	322 (10%)	653 (11%)	728 (12%)	15(0%)	713 (24%)
대학 (원)생	56(1%)	47(1%)	39(1%)	38(1%)	39(1%)	28(1%)	11(0%)
무직	81(2%)	79(3%)	65(2%)	122(2%)	87(1%)	49(1%)	38(1%)
기타	662 (14%)	386 (12%)	392 (13%)	815 (13%)	973 (15%)	504 (15%)	469 (16%)
계	4,700 (100%)	3,241 (100%)	3,123 (100%)	6,141 (100%)	6,414 (100%)	3,432 (100%)	2,982 (100%)

자료: 대부업 이용실태 조사

<표 8> 금융채무 불이행 여부에 따른 이용자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남성 (54%)	여성 (46%)
금융채무 불이행자	373 (8%)	300 (10%)	347 (12%)	765 (13%)	612 (10%)	360 (11%)	252 (9%)
정상거래자	4,160 (92%)	2,800 (90%)	2,653 (88%)	5,218 (87%)	5,694 (90%)	3,014 (89%)	2,680 (91%)
계	4,533 (100%)	3,100 (100%)	3,000 (100%)	5,983 (100%)	6,306 (100%)	3,374 (100%)	2,936 (100%)

자료: 대부업 이용실태 조사

<표 9> 자금 용도에 따른 이용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남성 (53%)	여성 (47%)
가계생활자금		2,560 (55%)	1,842 (57%)	1,885 (61%)	3,615 (61%)	3,998 (62%)	2,013 (58%)	1,985 (66%)
기존대출금 상환		925 (20%)	700 (21%)	563 (18%)	976 (17%)	948 (15%)	521 (15%)	427 (14%)
	은행연체 상환	277 (6%)	205 (6%)	168 (5%)	326 (6%)	319 (5%)	178 (5%)	141 (5%)
	카드연체 상환	462 (10%)	338 (10%)	276 (9%)	425 (7%)	389 (6%)	193 (6%)	196 (6%)
	대부금융사 채무상환	186 (4%)	157 (5%)	119 (4%)	225 (4%)	240 (4%)	150 (4%)	90 (3%)
사업자금		597 (13%)	442 (14%)	452 (15%)	974 (16%)	930 (14%)	583 (17%)	347 (11%)
기타		549 (12%)	246 (8%)	199 (6%)	342 (6%)	595 (9%)	338 (10%)	257 (9%)
계		4,631 (100%)	3,230 (100%)	3,099 (100%)	5,907 (100%)	6,471 (100%)	3,455 (100%)	3,016 (100%)

자료: 대부업 이용실태 조사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생활자금 등 생계형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대부금융업의 부족한 점으로는 70%의 이용자가 높은 이자율을 들고 있으며 좋은 점으로는 60%정도의 이용자가 신속한 대출을 열거하고 있다.

<표 10> 대부금융사의 부족한 점

구 분	남성	여성	계
높은 이자율	2,403(72%)	2,069(71%)	4,472(71%)
까다로운 대출심사	161(5%)	197(7%)	358(6%)
부족한 대출액수	277(8%)	176(6%)	453(7%)
불친절한 고객센터	48(1%)	42(1%)	90(1%)
나쁜 이미지	379(11%)	361(12%)	740(12%)
기타	83(3%)	73(3%)	156(3%)
계	3,351(100%)	2,918(100%)	6,269(100%)

자료: 대부업 이용실태 조사

<표 11> 대부금융사의 좋은 점

구 분	남성	여성	계
신속한 대출	2,134(64%)	1,782(61%)	3,916(62%)
신용도·소득이 낮아도 대출가능	714(21%)	681(23%)	1,395(22%)
친절한 고객센터	101(3%)	97(3%)	198(3%)
방문등 복잡한 절차 없이 대출	348(10%)	320(11%)	668(11%)
기타	56(2%)	44(2%)	100(2%)
계	3,353(100%)	2,924(100%)	6,277(100%)

자료: 대부업 이용실태 조사

2. 대부업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2012년과 2016년에 실시한 대부업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질문 내용에 순서가 있는 분석¹³⁾에 대해서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대부업 이용여부 등 0과 1로 구분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 및 학력이 관념상 순서가 있는 범주의 특징을 띄고 있지만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특징을 발견하기 위해 범주형 자료로 분석을 활용하였다. 범주형은 두 변수의 관측 값이 분할표(contingency table)의 형태이며 설명변수들에 반응변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13) 순서형이란 차입액 등 질문은 순서형 리커트척도로 일반적인 선형회귀식이 갖고 있는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이 경우 순서형 로짓이나 순서형 프로빗을 사용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질문과의 비교를 위해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다.

<표 12> 범주형 질문의 구분

질문 내용	설문지 답변
⑤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한 근본적인 이유	
1) 생계형	① 실직 및 휴직 ② 부도 등 사업실패 ③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필요
2) 소비형	④ 경마·화투 등 도박 ⑤ 술, 오락 등 유흥비 마련 ⑥ 옷 등 과도한 쇼핑(과소비)
3) 상환형	⑦ 금융회사 대출금 정리
⑥ 차입금의 사용처	
1) 사업	① 사업자금
2) 생활	② 가계생활자금
3) 금융기관 관련	③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④ 카드(연체)대금 납부 ⑤ 다른 대부금융 대출 상환
⑦ 대부업 선택시 고려사항	
1) 금리	① 이자율
2) 등록여부	② 대부업 등록 여부
3) 대출서비스	③ 대출의신속성 ⑤ 대출기간 ⑥ 대출금액
4) 친절도	④ 친절도
⑧ 대부업을 알게 된 동기	
1) 케이블	① 케이블 등 TV광고
2) 신문	② 생활정보지(무가지) ⑥ 일간지 ⑦ 전단지
3) 인터넷	③ 인터넷(메일)
4) 지인	④ 친구 등지인
5) 휴대폰	⑤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6) 중개업자	⑧ 중개업자
⑨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상담 여부	
1) 은행	① 은행
2) 저축은행	② 저축은행
3) 상호금융	③ 신협 ④ 새마을금고
4) 상담경험 무	⑤ 금융기관에서 상담 받은 적 없음
⑩ 채무상환 방법	
1) 자력상환	①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2) 신용회복위원회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 할 계획이다.
3) 법원	③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④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신청
4) 모름	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표 13> 표본 분포

		2012년(%)	2016년(%)
성별	남자	1955(53.36)	2642(54.79)
	여자	1709(46.64)	2180(45.21)
연령	20대	813(22.19)	992(20.57)
	30대	1511(41.24)	1454(30.15)
	40대	921(25.14)	1412(29.28)
	50대	387(10.56)	842(17.46)
	60대 이상	32(0.87)	122(2.53)
학력	초등졸	21(0.57)	31(0.64)
	중졸	102(2.78)	182(3.77)
	고졸	1822(49.73)	2549(52.86)
	대졸	1641(44.79)	1978(41.02)
	대학원이상	78(2.13)	82(1.7)
직업	회사원	2227(60.78)	2891(59.95)
	공무원	82(2.24)	103(2.14)
	자영업	796(21.72)	1176(24.39)
	주부	437(11.93)	542(11.24)
	대학(원)생	48(1.31)	38(0.79)
	무직	74(2.02)	72(1.49)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42(5.02)
	100~200만원		1564(32.43)
	200~300만원		1584(32.85)
	300~400만원		726(15.06)
	400~500만원		348(7.22)
	500~600만원		168(3.48)
	600만원 이상		190(3.94)
금융채부 불이행 여부	금융채부 불이행자	292(7.97)	477(9.89)
	정상거래자	3372(92.03)	4345(90.11)
결혼 여부	미혼	1663(45.39)	2006(41.6)
	기혼	2001(54.61)	2816(58.4)
동거가족수	1명		924(19.16)
	2명		858(17.79)
	3명		1288(26.71)
	4명		1349(27.98)
	5명		403(8.36)

본 연구에서는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설문지 조사항목 중, ① 대부업 이용 경험, ② 총부채금액, ③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입금액, ④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 ⑤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한 근본적인 이유, ⑥ 차입금의

사용처, ⑦ 대부업 선택 시 고려사항, ⑧ 대부업을 알게 된 동기, ⑨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상담 여부, ⑩ 타 금융기관 상담 후 대부업체를 이용한 이유, ⑪ 타 금융기관에 상담하지 않고 대부업을 이용한 이유, ⑫ 채무상환 방법, ⑬ 대부업의 부족한 점, ⑭ 대부업의 좋은 점 등 이상의 14개 질문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질문내용을 가지고 2012년과 2016년 2개년을 선택하여 연도별 대부업 이용자의 행태에 변화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2012년과 2016년에 있어서 질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기초통계에 있어서 2016년에는 월소득과 동거가족수가 변수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이 두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범주형 질문 중 질문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를 카테고리화하였다. 예를 들면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은 각각 1) 생계형, 2) 소비형, 3) 상환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12>는 범주형 질문의 카테고리를 정리한 것이다.

총 대상자는 전체 표본수에서 응답하지 않는 표본을 제외한 결과, 2012년 3,664명, 2016년 4,822명이다. 이 중 남성은 2012년 기준 53.4%, 2016년 기준 54.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로는 이용빈도수에 따라 30대 및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직업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인 60%정도를 회사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 주부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월소득에 있어서도 300만원 이하의 중간이하의 소득계층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기혼자의 비중이 미혼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프로빗모형 분석에 따른 변수의 유의성을 파악한 후 <참고자료>에 따라 각변수별 대부업 이용확률을 구하여 이를 변수별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채용하기로 한다. 다음에서는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분석결과를 질문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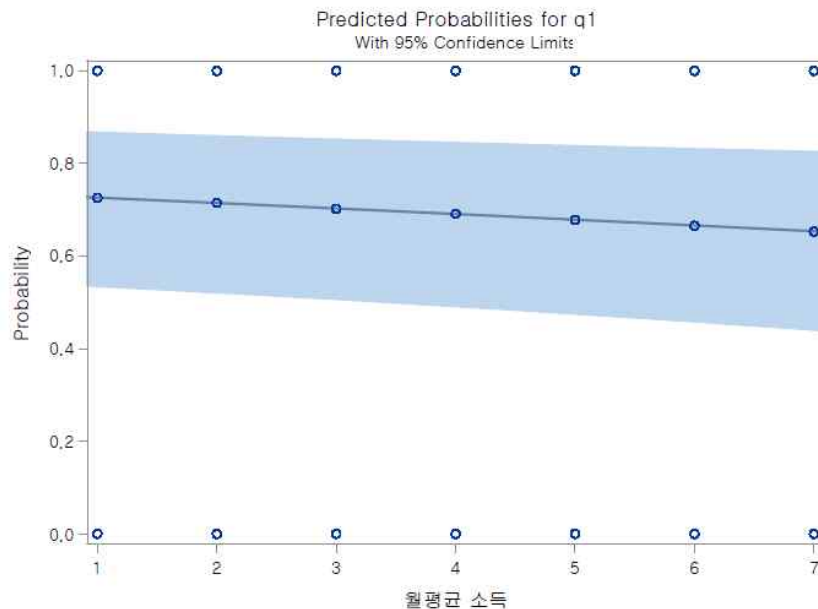
1. 대부업 이용여부

먼저 대부업 이용여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2012년 분석에 있어서는 직업, 연체 여부에 대한 변수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에 있어서는 무직에 비해 회사원은 5% 수준으로 대부업 이용확률이 약 34.3%포인트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은 무직에 비해 44.6%포인트, 대학(원)생은 63.4%포인트 5% 유의수준으로 이용확률이 낮아진다. 더불어 자영업자는 10% 유의수준으로 무직자에 비해 29.8%포인트 이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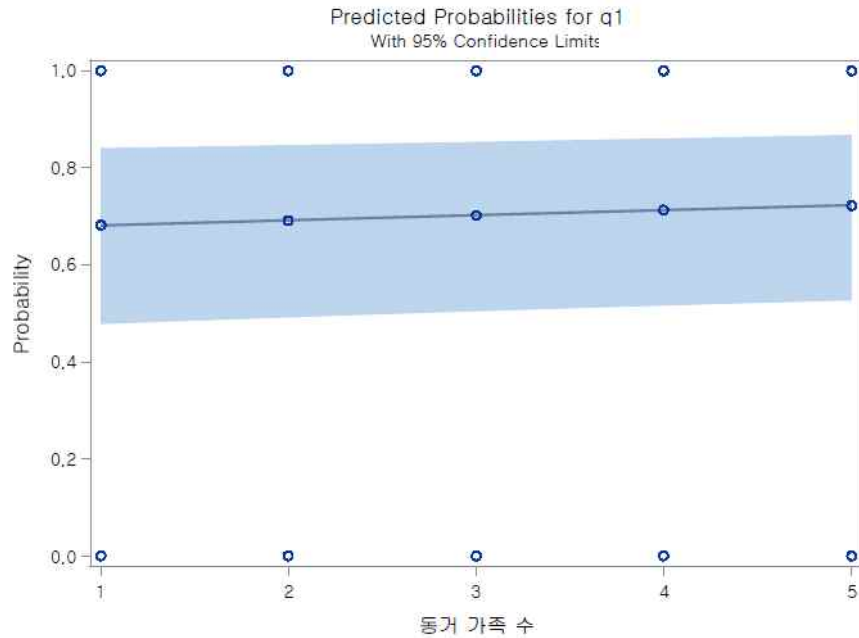
한 연체자는 정상거래자에 비해 5% 유의수준에서 22.7%포인트 이용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고객군은 신용불량자보다 정상금융거래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16년 분석에 있어서는 새롭게 추가된 소득변수에 대해서는 10% 수준에서 대부업 이용 여부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수도 10% 유의수준에서 대부업 이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거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부업 이용확률은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동거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비 등의 지출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자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12년과 달리 2016년 결과에 있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대부업 이용확률이 정상거래자에 비해 5% 1% 유의수준에서 4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된 40대 이상의 이용자들이 생계형 창업의 실패 등으로 저신용자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이들이 생계를 위한 자금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3> 월소득과 대부업 이용확률과의 관계



<그림 14> 동거 가족수와 대부업 이용확률과의 관계



<표 14> 대부업 이용확률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	1	-0.355	0.3325	절편	1	0.5484	0.2724**
남자	1	0.0047	0.0511	남자	1	0.0438	0.0464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196	0.2614	20대	1	-0.0565	0.1447
30대	1	0.04	0.2573	30대	1	0.2522	0.1375*
40대	1	0.1299	0.2572	40대	1	0.1748	0.135
50대	1	0.2538	0.2608	50대	1	0.0311	0.136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4906	0.3796	초등졸	1	-0.0822	0.2869
중졸	1	-0.0893	0.2069	중졸	1	0.0884	0.1859
고졸	1	-0.1616	0.158	고졸	1	0.1965	0.1559
대졸	1	-0.1874	0.1586	대졸	1	0.1821	0.1565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3428	0.1559**	회사원	1	-0.0325	0.176
공무원	1	-0.4463	0.2219**	공무원	1	0.1381	0.2317
자영업	1	-0.2983	0.1638*	자영업	1	0.0216	0.185
주부	1	-0.128	0.1727	주부	1	-0.0157	0.1897
대학(원)생	1	-0.6343	0.2662**	대학(원)생	1	-0.0212	0.2851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2268	0.0916**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4091	0.0815***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0	0	.
미혼	1	-0.0212	0.0559	미혼	1	-0.0231	0.0579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844	0.018*
				동거인수	1	0.0302	0.0181*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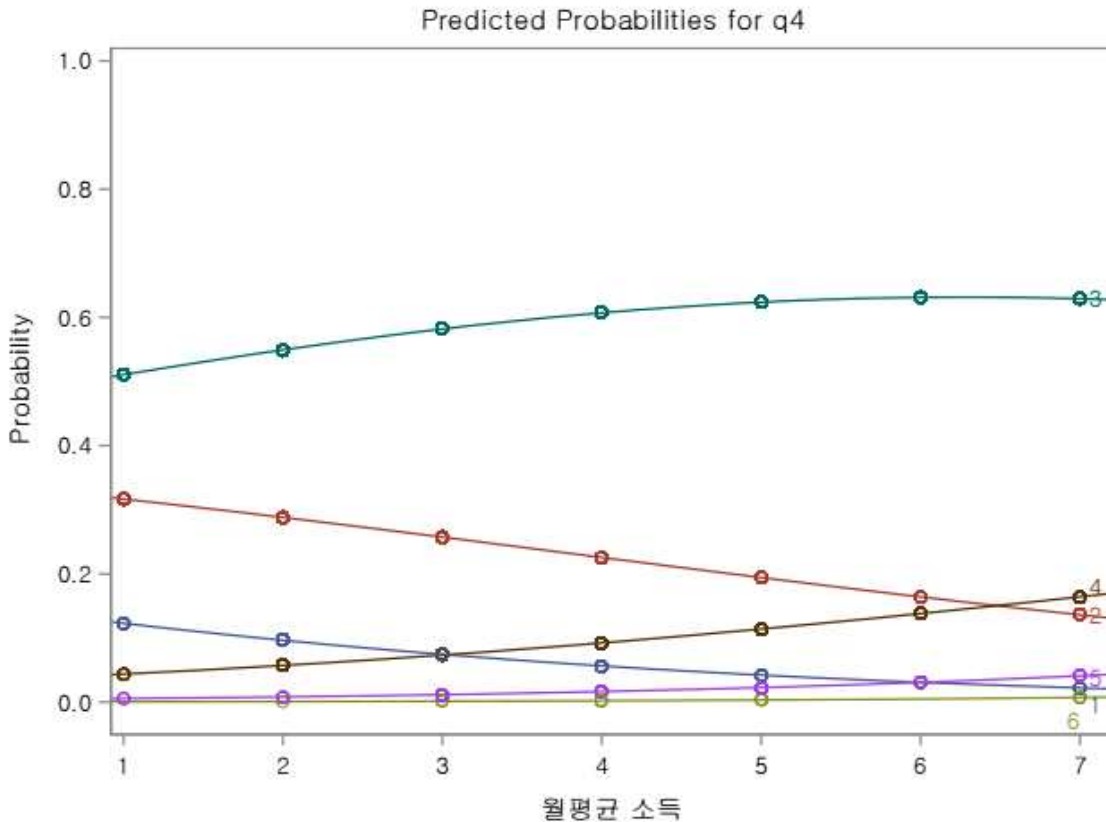
2) 한계효과는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2. 총부채금액

다음으로 성별, 학력 등 개별 속성이 총 부채금액과 어떤 관계에 있는 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2012년 프로빗모형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총부채금액과의 연관성이 10%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연령에서 대해서는 60대에 비해 40대가 총부채와의 관련성에서 10% 수준에서 37.4% 부채와의 상관성이 낮은 결과를 얻었다¹⁴⁾. 학력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도 5% 수준에서 총부채금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2016 결과에 있어서는 소득과 결혼여부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14) 이 결과는 총부채금액과 관련된 변수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계수가 정으로 나타나면 총부채금액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5> 총 부채금액과 대부업 이용확률과의 관계



<그림 15>는 총부채금액과 대부업 이용확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변수 1~6은 대부업을 포함한 총 부채금액의 구간을 나타내며 1은 없음, 2는 5백만원 이하, 3은 5백만원 초과~3천만원, 4는 3천만원 초과~1억원, 5는 1억원 초과~2억원, 6은 2억원 초과 구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월소득구간은 7단계로 구분되며, 1은 100만원 미만, 2는 100~200만원 미만, 3은 200~300만원 미만, 4는 300~400만원 미만, 5는 400~500만원 미만, 6은 500~600만원 미만, 7은 600만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그림 15>에 따르면 부채액이 아예 없거나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 이용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 부채의 경우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대부업을 통해 소액부채를 차입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채액이 5백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평균소득과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은 거의 일정한 데, 이는 부채금액이 커지게 되면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하기 보다는 여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5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커진다고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연령에 있어서 부채금액에 따른 대부업 이용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학력자일수록 저학력자에 비해 부채가 많은 자가 대부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 금융채무 불이행 여부, 결혼여부에 대해서는 총부채금액과 대부업 이용 확률 간에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표 15> 부채금액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1.6876	0.269***	절편1	1	-0.9687	0.2134***
절편2	1	1.3099	0.0339***	절편2	1	1.0084	0.0281***
절편3	1	2.9699	0.0441***	절편3	1	2.8073	0.0372***
절편4	1	3.6288	0.0566***	절편4	1	3.6716	0.0504***
절편5	1	4.1965	0.0836***	절편5	1	4.4528	0.0896***
남자	1	-0.0684	0.0403*	남자	1	-0.1365	0.0361***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2406	0.206	20대	1	0.0987	0.1153
30대	1	-0.1756	0.2026	30대	1	-0.1624	0.109
40대	1	-0.3738	0.2025*	40대	1	-0.2294	0.1072**
50대	1	-0.212	0.2057	50대	1	-0.1256	0.1085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1.2762	0.2766***	초등졸	1	0.2833	0.2329
중졸	1	0.5789	0.168***	중졸	1	0.5059	0.1488***
고졸	1	0.3727	0.1271***	고졸	1	0.2038	0.1243
대졸	1	0.2205	0.1274*	대졸	1	0.1816	0.1247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1098	0.133	회사원	1	-0.1851	0.1334
공무원	1	-0.3279	0.1781*	공무원	1	-0.5413	0.1727***
자영업	1	-0.151	0.1387	자영업	1	-0.2389	0.1405*
주부	1	0.2024	0.1461	주부	1	0.005	0.1439
대학(원)생	1	-0.2679	0.2053	대학(원)생	1	0.2458	0.2194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1143	0.0684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889	0.0543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0	0	.

미혼	1	0.0895	0.0438**	미혼	1	0.1028	0.0446**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1415	0.0142***
				동거인수	1	-0.0174	0.014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는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3.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액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차입금액과 개별속성과의 프로빗모형에 있어서는 먼저 2012년 분석 결과, 결혼여부와 회사원,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대해서만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을 뿐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분석결과는 추가된 소득과 동거인 수에 대해 각각 1% 수준과 5%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론에 달했고, 금융채무 불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1% 수준에서 대부업 차입액과 유의하다고 추정되었다.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 연령 등 모든 변수에 있어서 대부업으로부터의 차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계층이 대부업으로부터 신규차입을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대부업체가 과다하게 대부업체로부터 차입하고 있어 신용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이용자에게는 대출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6>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입금액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0.5607	0.2702**	절편1	1	-0.5983	0.2158***
절편2	1	1.2645	0.0272***	절편2	1	1.2239	0.0279***
절편3	1	2.2461	0.0363***	절편3	1	2.1818	0.0323***
절편4	1	3.5071	0.0836***	절편4	1	3.5053	0.0497***
남자	1	0.0073	0.0403	남자	1	-0.0289	0.0354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094	0.2061	20대	1	0.0779	0.1153
30대	1	-0.2868	0.2025	30대	1	-0.1359	0.109
40대	1	-0.4162	0.2023**	40대	1	-0.236	0.1071**
50대	1	-0.4803	0.2056**	50대	1	-0.2049	0.1085*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8967	0.2819***	초등졸	1	0.0034	0.2446
중졸	1	0.2152	0.1686	중졸	1	0.1007	0.1497

고졸	1	0.1135	0.1261	고졸	1	0.0264	0.1256
대졸	1	0.1333	0.1265	대졸	1	0.0825	0.126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2972	0.1387**	회사원	1	-0.3533	0.135***
공무원	1	-0.4873	0.1844***	공무원	1	-0.6601	0.1732***
자영업	1	-0.3276	0.1442**	자영업	1	-0.3711	0.1418***
주부	1	-0.0133	0.1517	주부	1	-0.1095	0.145
대학(원)생	1	-0.3121	0.2103	대학(원)생	1	0.2495	0.226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574	0.068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2465	0.0525***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0	0	.
미혼	1	0.0994	0.0438**	미혼	1	0.0461	0.0438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1078	0.0139***
				동거인수	1	-0.0287	0.0137**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는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4. 대부업 평균 이자율

대부업 이자율과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2012년 분석결과, 성별과 금융채무 불이행여부만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6년 결과는 성별에 있어서만 10% 수준에서 유의할 뿐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성 검증이 기각되었다. 이는 대부업에 대한 이자율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을 지키고 있고 따라서 조사목적인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17> 대부업 평균이자율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0.3173	0.3357	절편1	1	0.5529	0.2666**
절편2	1	0.5725	0.0217***	절편2	1	0.5015	0.0192***
절편3	1	0.98	0.0297***	절편3	1	0.5806	0.0209***
절편4	1	1.0598	0.0314***	절편4	1	0.6062	0.0215***
절편5	1	1.1354	0.0331***	절편5	1	0.6352	0.0221***
절편6	1	1.2899	0.0369***	절편6	1	0.7834	0.0253***

남자	1	0.1987	0.0469***	남자	1	0.0748	0.0437*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0257	0.2713	20대	1	0.0078	0.1414
30대	1	-0.119	0.2677	30대	1	-0.0406	0.133
40대	1	-0.0815	0.2677	40대	1	-0.0052	0.1308
50대	1	-0.0596	0.2715	50대	1	-0.004	0.1326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0174	0.3264	초등졸	1	-0.3466	0.2738
중졸	1	-0.327	0.2005	중졸	1	0.2141	0.1918
고졸	1	-0.0811	0.1495	고졸	1	0.0225	0.1587
대졸	1	-0.0434	0.1499	대졸	1	0.0115	0.159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0636	0.1581	회사원	1	0.1466	0.1658
공무원	1	-0.1858	0.2093	공무원	1	0.1308	0.2129
자영업	1	0.0305	0.1648	자영업	1	-0.0044	0.174
주부	1	0.1189	0.1729	주부	1	0.1241	0.1783
대학(원)생	1	0.041	0.2412	대학(원)생	1	0.6991	0.3361**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2301	0.0778***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074	0.0655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0	0	.
미혼	1	-0.0241	0.0508	미혼	1	-0.0901	0.0536*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144	0.0171
				동거인수	1	0.0008	0.0172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는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5. 차입 이유

대부업으로부터 차입원인에 대한 결과는 2012년은 학력과 기혼여부, 2016년은 기혼여부에 대해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개별주체별 차입원인의 차이가 있는지 차입원인을 생계, 오락, 부채상환으로 구분하여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녀 모두 생계형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생활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12년과 비교하면 2016년에는 생계형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대신 오락 등을 위해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생계를 위한 대부업 이용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

으나 3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에 비해 오락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2012년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을 위한 대부업 차입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전반적으로 초등졸을 제외한 전 학력에서 오락을 위한 차입이 감소하고 생계를 위한 차입비중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직업에 있어서는 2016년 분석결과 회사를 제외한 모든 직군에서 오락으로 인한 대부업 차입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참조)

<표 18> 차입이유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0.8257	0.4198**	절편1	1	-1.5214	0.2902***
절편2	1	0.863	0.0359***	절편2	1	2.755	0.0446***
남자	1	0.0899	0.0567	남자	1	-0.0516	0.0496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0542	0.3318	20대	1	0.3988	0.1627**
30대	1	-0.1794	0.3283	30대	1	0.2337	0.1543
40대	1	-0.0204	0.3296	40대	1	0.1325	0.1517
50대	1	-0.1161	0.3339	50대	1	0.0718	0.1541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1.1154	0.4639**	초등졸	1	0.4434	0.3095
중졸	1	0.1311	0.2307	중졸	1	0.0805	0.2032
고졸	1	0.4658	0.1656***	고졸	1	-0.0364	0.1675
대졸	1	0.3288	0.1655**	대졸	1	-0.0679	0.1678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4566	0.212**	회사원	1	-0.2733	0.1729
공무원	1	-0.215	0.2803	공무원	1	-0.0749	0.2213
자영업	1	-0.3247	0.2212	자영업	1	-0.2772	0.1844
주부	1	-0.1454	0.2291	주부	1	-0.0848	0.1885
대학(원)생	1	0.0283	0.3202	대학(원)생	1	0.1299	0.3284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214	0.0985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797	0.0727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0	0	.
미혼	1	-0.1849	0.0619***	미혼	1	0.1589	0.0614***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265	0.0203
				동거인수	1	-0.0238	0.0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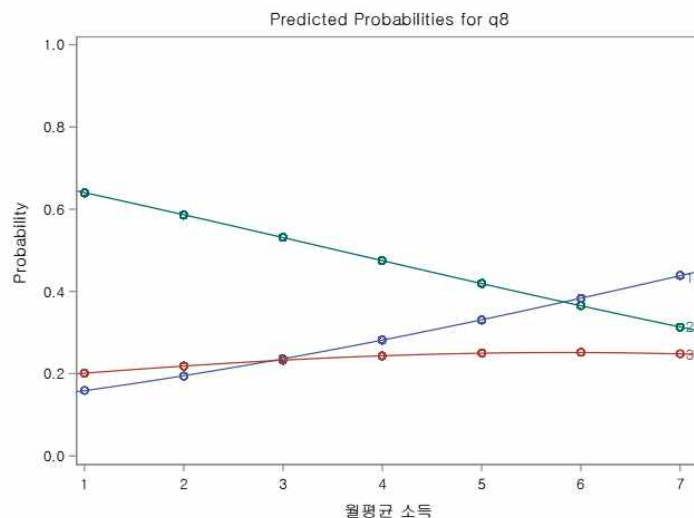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를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6. 자금의 사용처

자금사용 용도와 대부업 이용에 관한 분석에서는 2012년 결과는 일부 학력과 결혼 여부에 대해서 유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2016년 결과는 일부 직업과 소득,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 자금사용 용도 변수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고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변화와 자금사용용도를 살펴보면 1) 사업자금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2) 생활자금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3) 대출상환 등 금융기관 채무와 관련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6>은 자금사용 목적과 월평균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인데 1은 사업자금 목적, 2는 가계생활자금 목적, 3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가계생활자금 목적으로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사업자금을 위한 차입 가능성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 상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목적의 차입가능성이 증가하다가 소득이 일정수준에 달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16> 자금 사용처와 월평균소득과의 관계



<표 19> 자금사용처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1.0935	0.3265***	절편1	1	-1.0968	0.2521***
절편2	1	0.8505	0.0289***	절편2	1	0.641	0.0223***
남자	1	-0.0111	0.0486	남자	1	0.0441	0.0438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1967	0.2374	20대	1	-0.2143	0.1425
30대	1	-0.1424	0.2324	30대	1	-0.165	0.1344
40대	1	-0.19	0.2322	40대	1	-0.2331	0.1319*
50대	1	-0.0367	0.2361	50대	1	-0.0434	0.1332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5152	0.3199	초등졸	1	-0.12	0.2666
중졸	1	-0.3443	0.2033*	중졸	1	-0.3369	0.1782*
고졸	1	-0.3889	0.1503***	고졸	1	-0.2012	0.1451
대졸	1	-0.2173	0.1505	대졸	1	-0.1549	0.1454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0918	0.1854	회사원	1	-0.4383	0.1544***
공무원	1	0.1816	0.239	공무원	1	-0.2881	0.2011
자영업	1	1.2927	0.1903***	자영업	1	0.7427	0.1619
주부	1	-0.0683	0.201	주부	1	-0.5053	0.1706***
대학(원)생	1	-0.3574	0.3115	대학(원)생	1	-0.4012	0.308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518	0.0817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492	0.0664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0	0	.
미혼	1	0.1011	0.0533*	미혼	1	0.1713	0.0544***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1409	0.0166***
				동거인수	1	-0.0154	0.0172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를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과 2016년을 비교할 때 거의 모든 변수에서 사업자금을 위한 차입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생활자금을 위한 차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7. 대부업 선택요인

다음으로 대부업 선택요인을 살펴보면 2012년 결과 거의 모든 변수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2016년 결과는 성별, 연령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즉 2016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자의 50%, 여자의 45%가 대출의 신속성으로 대부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남자의 37%, 여자의 39%가 이자율을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성과 소비자들이 타 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로 인해 금리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0> 대부업 선택요인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0.2778	0.2762	절편1	1	-0.5616	0.2152***
절편2	1	0.9758	0.0246***	절편2	1	1.1473	0.0223***
절편3	1	1.8659	0.042***	절편3	1	2.022	0.036***
남자	1	0.0046	0.0423	남자	1	0.1417	0.0363***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1747	0.2074	20대	1	0.3082	0.116***
30대	1	0.1626	0.2038	30대	1	0.2892	0.1094***
40대	1	0.2039	0.2039	40대	1	0.1555	0.1074
50대	1	0.2754	0.2074	50대	1	0.1601	0.1088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432	0.3003	초등졸	1	0.0936	0.2422
중졸	1	-0.2062	0.1755	중졸	1	0.0436	0.1499
고졸	1	0.1198	0.1334	고졸	1	-0.0529	0.1256
대졸	1	0.1413	0.1339	대졸	1	-0.002	0.126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111	0.1396	회사원	1	0.0643	0.1357
공무원	1	0.1087	0.1915	공무원	1	0.151	0.1763
자영업	1	-0.134	0.1456	자영업	1	0.1049	0.1428
주부	1	-0.1383	0.1534	주부	1	-0.0034	0.146
대학(원)생	1	-0.1684	0.2133	대학(원)생	1	0.1583	0.2305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065	0.0717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216	0.0545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0	0	.

미혼	1	0.038	0.0461	미혼	1	-0.007	0.045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002	0.0141
				동거인수	1	-0.0026	0.0141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는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8. 대부업을 알게 된 경로

대부업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2012년 분석의 채무불이행 여부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을 뿐 대부분의 변수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있어서 대부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대부업을 알게된 경로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0.1258	0.2664	절편1	1	-0.4797	0.2108**
절편2	1	0.0895	0.0079***	절편2	1	0.9973	0.0202***
절편3	1	0.4789	0.0173***	절편3	1	1.3666	0.0236***
절편4	1	1.0369	0.0257***	절편4	1	1.8715	0.03***
절편5	1	1.2632	0.0293***	절편5	1	2.0884	0.034***
남자	1	-0.0191	0.0418	남자	1	0.0559	0.0349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1537	0.2027	20대	1	0.1658	0.1115
30대	1	0.1175	0.199	30대	1	0.2935	0.1054***
40대	1	-0.1362	0.1989	40대	1	0.2639	0.1036**
50대	1	-0.3177	0.2019	50대	1	0.09	0.1046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0999	0.2855	초등졸	1	-0.3293	0.2292
중졸	1	-0.221	0.1712	중졸	1	-0.4195	0.1465***
고졸	1	-0.028	0.1321	고졸	1	-0.0663	0.1244
대졸	1	-0.0013	0.1327	대졸	1	-0.0343	0.1248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1608	0.1311	회사원	1	-0.0701	0.1331
공무원	1	0.1691	0.1837	공무원	1	-0.1135	0.1712
자영업	1	0.1712	0.1373	자영업	1	-0.1387	0.1398
주부	1	0.287	0.1459**	주부	1	-0.1523	0.1428

대학(원)생	1	-0.151	0.2027	대학(원)생	1	-0.2612	0.2182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1721	0.0695**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607	0.0533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0	0	.
미혼	1	-0.0212	0.0457	미혼	1	0.0247	0.0433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131	0.0137
				동거인수	1	-0.02	0.0136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는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9. 대출상담 금융기관

앞서 대부업을 알게 된 경로와 마찬가지로 대출상담 금융기관과 대부업 이용과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부업 이용 이전 어떠한 금융기관과 대출에 대해 상담하였던 간에 그 결과는 대부업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업 이용자의 상당부분이 저신용자로 다른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포기하기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대출상담 금융기관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	1	-0.0799	0.3137	절편1	1	-0.5946***	0.2135
				절편2	1	0.6747***	0.0171
				절편3	1	2.2187***	0.0363
남자	1	0.1262***	0.0467	남자	1	0.014	0.0356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2174	0.2407	20대	1	0.101	0.1162
30대	1	0.3827	0.2368	30대	1	0.2297**	0.1102
40대	1	0.4048*	0.2369	40대	1	0.2398**	0.1085
50대	1	0.2318	0.2403	50대	1	0.171	0.1097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2938	0.3248	초등졸	1	-0.656***	0.2323
중졸	1	-0.4512**	0.198	중졸	1	-0.3802	0.1484
고졸	1	-0.2631*	0.1525	고졸	1	-0.2141*	0.125

대출	1	-0.1617	0.153	대출	1	-0.0371	0.1254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0997	0.1512	회사원	1	0.1179	0.1327
공무원	1	-0.0801	0.2039	공무원	1	0.2435	0.1735
자영업	1	0.1709	0.1583	자영업	1	0.2218	0.1398
주부	1	-0.1813	0.1667	주부	1	0.0215	0.143
대학(원)생	1	-0.1678	0.2358	대학(원)생	1	0.2251	0.2207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1178	0.0797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1235**	0.0534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0	0	.
미혼	1	0.0311	0.051	미혼	1	-0.0639	0.0441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299**	0.014
				동거인수	1	-0.0224	0.0138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는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10. 타 기관 상담 후 이용 이유

타 금융기관 상담 후 대부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 분석 결과 채무불이행 여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절 받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 경우 대부업에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3> 타 기관 상담 후 이용 이유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1.9386	0.4341***	절편1	1	-0.7757	0.2782***
절편2	1	0.7425	0.0283***	절편2	1	0.9836	0.0255***
절편3	1	1.5003	0.0399***	절편3	1	1.8672	0.0352***
남자	1	0.0444	0.0551	남자	1	0.0313	0.0436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1.4177	0.3567***	20대	1	0.4203	0.1506***
30대	1	1.4196	0.3527***	30대	1	0.2581	0.1425*
40대	1	1.2819	0.3533***	40대	1	0.1467	0.1403
50대	1	1.2327	0.3587***	50대	1	0.0147	0.1417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1.4491	0.5614***	초등졸	1	-0.0544	0.2909
중졸	1	0.1283	0.2427	중졸	1	-0.2168	0.1778
고졸	1	0.1058	0.1633	고졸	1	-0.1803	0.1433
대졸	1	0.1394	0.1635	대졸	1	-0.0787	0.1434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0264	0.187	회사원	1	0.0868	0.1929
공무원	1	0.0443	0.2486	공무원	1	0.0096	0.2343
자영업	1	-0.0596	0.1941	자영업	1	0.0248	0.1997
주부	1	-0.0753	0.2083	주부	1	-0.0128	0.205
대학(원)생	1	-0.2857	0.3245	대학(원)생	1	0.5229	0.321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6849	0.0979***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161	0.0655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2	0	.
미혼	1	-0.0093	0.0577	미혼	1	-0.0734	0.0541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107	0.0171
				동거인수	1	-0.0155	0.0172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는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11. 상담하지 않고 이용한 이유

타 금융기관과 상담하지 않고 대부업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2012년 분석에서는 채무 불이행 여부만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에는 채무불이행 여부와 대부업 이용 간에는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2016년 조사는 2012년에 비해 타 금융기관과 상담하지 않고 직접 대부업을 이용하는 직업이 다소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표 24> 타금융기관 미상담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1.346	0.4179***	절편1	1	-1.1507	0.3627***
절편2	1	1.1415	0.0433***	절편2	1	0.6698	0.0294***
절편3	1	2.3825	0.0632***	절편3	1	1.8395	0.0478***
남자	1	0.0132	0.0668	남자	1	0.0267	0.0598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0671	0.3023	20대	1	-0.0209	0.1957
30대	1	0.1156	0.2973	30대	1	-0.2211	0.1855
40대	1	0.1811	0.296	40대	1	-0.2085	0.1834
50대	1	0.1032	0.2999	50대	1	-0.3672	0.1851**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4117	0.3827	초등졸	1	-0.1027	0.4086
중졸	1	-0.1452	0.2958	중졸	1	0.0358	0.27
고졸	1	-0.0445	0.2485	고졸	1	0.0841	0.2385
대졸	1	-0.1442	0.2494	대졸	1	0.1057	0.2394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3003	0.1957	회사원	1	0.5751	0.1879***
공무원	1	-0.1571	0.2718	공무원	1	0.7135	0.2746***
자영업	1	0.3749	0.2068*	자영업	1	0.4732	0.2023**
주부	1	0.392	0.2178*	주부	1	0.3092	0.2069
대학(원)생	1	-0.0631	0.296	대학(원)생	1	-0.0085	0.3715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495	0.1108***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89	0.0838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2	0	.
미혼	1	0.0859	0.0753	미혼	1	0.1277	0.0746*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387	0.0231*
				동거인수	1	-0.0034	0.0232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는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12. 채무상환 방법

채무상환방법에 대해서는 2012년과 2016년 모두 채무불이행 여부와 채무상환 방법 사이에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2%, 금융채무 이행자는 97%가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할 확률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가 대부업 대출이 시행된 직후 이루어져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부채 상환 가능성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5> 채무상환 방법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1.1801**	0.4825	절편1	1	1.6296	0.4149***
절편2	1	0.1043***	0.0153	절편2	1	0.1468	0.0151***
절편3	1	0.3575***	0.0302	절편3	1	0.385	0.0261***
남자	1	0.2038***	0.0707	남자	1	0.0618	0.0593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2015	0.3271	20대	1	-0.3656	0.2191*
30대	1	0.2231	0.3223	30대	1	-0.3622	0.2108*
40대	1	0.2777	0.3233	40대	1	-0.2208	0.2087
50대	1	0.1367	0.3261	50대	1	-0.2257	0.2094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1286	0.5592	초등졸	1	-0.7574	0.4273*
중졸	1	-0.9425***	0.3503	중졸	1	-0.915	0.3296***
고졸	1	-0.5018	0.3141	고졸	1	-0.5464	0.3072*
대졸	1	-0.4431	0.315	대졸	1	-0.4633	0.3079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5292***	0.1748	회사원	1	0.4295	0.178**
공무원	1	0.2534	0.2589	공무원	1	0.1504	0.2396
자영업	1	0.6408***	0.1904	자영업	1	0.5134	0.1949***
주부	1	0.4301**	0.2004	주부	1	0.4197	0.1991**
대학(원)생	1	0.0318	0.2819	대학(원)생	1	0.7482	0.3901*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4435***	0.1004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3821	0.0769***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2	0	.
미혼	1	-0.076	0.0757	미혼	1	-0.0573	0.0738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468	0.0249*
				동거인수	1	0.0209	0.023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는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13. 대부업의 부족한 점

대부업의 부족한 점과 대부업 이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2016년 기혼여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 미혼자는 44%, 기혼자는 49%가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높

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 나쁜 평판의 경우 약 18%의 응답자가 대부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6> 대부업의 부족한 점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0.3711	0.3167	절편1	1	0.7439	0.2558***
절편2	1	0.4973	0.0211***	절편2	1	0.4595	0.018***
절편3	1	0.7885	0.0276***	절편3	1	0.9096	0.0277***
절편4	1	0.8977	0.0301***	절편4	1	1.0361	0.0308***
남자	1	0.058	0.0481	남자	1	0.0069	0.043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1264	0.244	20대	1	-0.3418	0.1471**
30대	1	0.1909	0.2403	30대	1	-0.2448	0.1408*
40대	1	0.2463	0.2406	40대	1	-0.2445	0.1388*
50대	1	0.1563	0.2444	50대	1	-0.1857	0.1404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3554	0.3304	초등졸	1	-0.7327	0.2709***
중졸	1	-0.643	0.2084***	중졸	1	-0.4357	0.1801**
고졸	1	-0.362	0.1664**	고졸	1	-0.1231	0.1543
대졸	1	-0.1991	0.1671	대졸	1	-0.0644	0.1548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2576	0.1462*	회사원	1	0.3437	0.1461**
공무원	1	0.1182	0.2089	공무원	1	0.1834	0.1919
자영업	1	0.136	0.1536	자영업	1	0.3628	0.1556**
주부	1	0.3349	0.1633**	주부	1	0.109	0.1593
대학(원)생	1	0.0236	0.2347	대학(원)생	1	0.4571	0.2597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1105	0.0826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285	0.0653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2	0	.
미혼	1	-0.0388	0.0526	미혼	1	-0.1226	0.0531**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22	0.0168
				동거인수	1	0.0216	0.0167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를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14. 대부업의 좋은 점

마지막으로 대부업의 좋은 점과 대부업 이용여부의 분석에서는 2012년 분석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2016년 분석에서는 결혼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2012년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 신속한 대출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53%, 여성의 경우 49%가 대부업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업 이용이 신속성이라고 응답한 계층의 절반 정도가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속성이 대부업 이용자가 타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연령별로도 나타나는데 50대까지는 신속한 대출이라 응답한 사람이, 60대에는 신용도, 대출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대부업의 좋은 점에 대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2012)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변수명 (2016)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1	1	-0.0683	0.2982	절편1	1	0.416	0.2437*
절편2	1	0.6812	0.0223***	절편2	1	0.7541	0.0212***
절편3	1	1.636	0.0437***	절편3	1	0.9071	0.0238***
남자	1	0.1128	0.0449**	남자	1	0.0555	0.0404
여자	0	0	.	여자	0	0	.
20대	1	0.4344	0.2271*	20대	1	0.0397	0.1342
30대	1	0.3849	0.2233*	30대	1	-0.1223	0.1273
40대	1	0.4341	0.2235*	40대	1	-0.0672	0.1255
50대	1	0.5268	0.2274**	50대	1	-0.2159	0.1264*
60대 이상	0	0	.	60대 이상	0	0	.
초등졸	1	-0.4944	0.3028	초등졸	1	-0.0305	0.2744
중졸	1	-0.4759	0.1978**	중졸	1	-0.3761	0.1721**
고졸	1	-0.3379	0.1533**	고졸	1	-0.1535	0.1478
대졸	1	-0.247	0.1539	대졸	1	-0.0165	0.1484
대학원이상	0	0	.	대학원이상	0	0	.
회사원	1	0.1132	0.1413	회사원	1	0.2085	0.1439
공무원	1	0.1616	0.2004	공무원	1	0.1292	0.1877
자영업	1	0.0534	0.148	자영업	1	0.2945	0.1523*
주부	1	0.0749	0.156	주부	1	0.1944	0.1559
대학(원)생	1	-0.1277	0.219	대학(원)생	1	0.2981	0.2511
무직	0	0	.	무직	0	0	.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0658	0.0742	금융채무 불이행자	1	-0.1261	0.0591**
정상거래자	0	0	.	정상거래자	2	0	.
미혼	1	0.0609	0.0487	미혼	1	-0.0885	0.0498*
기혼	0	0	.	기혼	0	0	.
				소득	1	-0.0055	0.0158
				동거인수	1	-0.0162	0.0156

주:1) ***는 1%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한계효과를 각변수의 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설명변수의 확률 변화폭임

제4장. 결론

본 보고서는 매년 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이용실태조사를 기초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특징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의 기초특성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업 이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12년 분석결과에서는 직업, 연체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분석에 있어서는 새롭게 추가된 소득에 대해 10% 수준에서 대부업 이용 여부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은 무직자에 비해 44.6% 대부업 이용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부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총부채금액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총부채금액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 여성 모두 5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여타 채무자에 비해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하게 된 이유와 대부업 대출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생계를 위해”라고 대답한 이용자가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오락 및 부채상환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2년과 2016년을 비교할 때 그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또한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변수에 있어서 생활자금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대부업으로부터 차입할 확률이 2012년 30-40%에서 2016년 80%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따라서 사용용도가 생활자금인 경우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 이용자중 20~30대 비중이 높아 과소비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것이다. 즉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과소비 등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이며 신용카드에 비해

편리성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대부업의 경우에는 과소비에 대한 지출보다는 타 금융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의 이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 시장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상호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만큼 정책당국의 입장에서조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대부업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리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부업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이자율과 신속성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여타 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대부업의 상한금리는 27.9%로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대부업의 원가금리에 근접하고 있다. 이대기(2016)의 연구에 따르면 2013~2014년 평균 대부업의 원가금리는 26.04%로 상한금리와 1.86%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대부업 이용자가 저신용자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비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여건에서도 대부업의 자금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도한 상한금리 인하는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의 자금공급을 더욱 축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중간신용자 시장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 보다 먼저 상한금리를 20%로 낮춘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추가적인 상한 금리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표 28〉 대부업의 원가금리 세부항목(2013~2014년 평균)

구분	자금조달비	모집비	인건비	임차료	사후관리비	대손비	일반관리비	합계
원가금리	4.92	3.99	3.29	0.3	0.05	12.17	1.32	26.04
(비중)	18.87	15.3	12.62	1.16	0.19	46.62	5.23	100

자료: 이대기(2016)

대부업 이용경로, 대출이자율 등은 대부업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부업 이용 전에 상담했던 금융기관, 상담여부 등도 대부업 이용에 그다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대부업의 장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여느 경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 미국과 영국의 페이데이론, 일본의 대금업 이용자의 이용형태와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의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의 페이데이론 이용자는 일본 및 우리나라의 이용자에 비해 학력, 소득 등에 있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생계비 부족으로 인한 이용이 여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페이데이론의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생계비대출이 당초 목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금업 등이 회사원 등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 등에서 현재 페이데이론의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주별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은 저신용자, 저소득자에 대출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규제가 과다하게 이루어져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시장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에 따른 시장에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등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가 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환능력이 미비한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융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들이 과다한 부채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伊藤真一,『消費者金融の新展開』,晃洋書房,2007

大森泰人・遠藤俊英編『新貸金業法の解説』金融財政事情研究会,2008

金融庁,貸金業利用者に関する調査・研究,2015

田口さつき,「改正貸金業法の論点整理と利用者についての分析」,農林金融,2013

堂下 浩,『消費者金融市場の研究』,文真堂,2010

Citizens Advice Scotland, “Payday Loans: a mayday call” , 2013

the PEW charitable trusts, “Who Borrows,Where They Borrow, and Why” , 2012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이용실태조사” , 각년

이대기,「미소금융의 효율성 분석: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금리 추정과 상품개선방안」, 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2016

<참고자료>

2. 총부채액과 대부업 이용확률

		총 부채	개별 2012	개별 2016
성별	남자	없음	0.44229	0.18552
		5백만원	0.43565	0.35979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1969	0.4268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212	0.02515
		1억원 ~ 2억원	0.00022	0.00255
		2억원 초과	3E-05	0.00019
	여자	없음	0.46941	0.22423
		5백만원	0.42183	0.37462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0685	0.38094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172	0.01842
		1억원 ~ 2억원	0.00017	0.00168
		2억원 초과	2E-05	0.00011
		총 부채	개별 2012	개별 2016
연령	20대	없음	0.44229	0.18552
		5백만원	0.43565	0.35979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1969	0.4268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212	0.02515
		1억원 ~ 2억원	0.00022	0.00255
		2억원 초과	3E-05	0.00019
	30대	없음	0.28728	0.12391
		5백만원	0.48566	0.31754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21905	0.50925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693	0.04336
		1억원 ~ 2억원	0.00094	0.00545
		2억원 초과	0.00014	0.00049
	40대	없음	0.22374	0.11074
		5백만원	0.4852	0.30443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27752	0.52831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1148	0.04936
		1억원 ~ 2억원	0.00177	0.00654
		2억원 초과	0.00029	0.00062
	50대	없음	0.27499	0.13161
		5백만원	0.48682	0.32441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22935	0.49832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762	0.04032
		1억원 ~ 2억원	0.00106	0.00491
		2억원 초과	0.00016	0.00043
	60대	없음	0.34983	0.1603
		5백만원	0.47246	0.34573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7283	0.45914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429	0.03113
		1억원 ~ 2억원	0.00052	0.00343
		2억원 초과	7E-05	0.00027
		총 부채	개별 2012	개별 2016
학력	초등졸	없음	0.44229	0.18552
		5백만원	0.43565	0.35979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1969	0.4268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212	0.02515
		1억원 ~ 2억원	0.00022	0.00255
		2억원 초과	3E-05	0.00019
	중졸	없음	0.19975	0.25081
		5백만원	0.48015	0.38092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30341	0.35191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1402	0.01501
		1억원 ~ 2억원	0.00227	0.00127
		2억원 초과	0.0004	8E-05
	고졸	없음	0.14717	0.16502
		5백만원	0.45589	0.34867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36959	0.45293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2241	0.02989
		1억원 ~ 2억원	0.00412	0.00324
		2억원 초과	0.00082	0.00025
	대졸	없음	0.11489	0.15958
		5백만원	0.42851	0.34528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41815	0.46008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3086	0.03133
		1억원 ~ 2억원	0.00622	0.00346
		2억원 초과	0.00137	0.00027
	대학원이상	없음	0.0776	0.11944
		5백만원	0.37802	0.31329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48363	0.51567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4711	0.04528
		1억원 ~ 2억원	0.01088	0.00579
		2억원 초과	0.00276	0.00053

		총 부채	개별 2012	개별 2016
직업	회사원	없음	0.44229	0.18552
		5백만원	0.43565	0.35979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1969	0.4268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212	0.02515
		1억원 ~ 2억원	0.00022	0.00255
		2억원 초과	3E-05	0.00019
	공무원	없음	0.35823	0.10552
		5백만원	0.46988	0.29872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6732	0.53597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402	0.05205
		1억원 ~ 2억원	0.00049	0.00706
		2억원 초과	6E-05	0.00068
	자영업자	없음	0.42607	0.17148
		5백만원	0.44333	0.35245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2791	0.44455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24	0.02829
		1억원 ~ 2억원	0.00026	0.003
		2억원 초과	3E-05	0.00023
	주부	없음	0.56634	0.24057
		5백만원	0.36382	0.37882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06899	0.36287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078	0.01624
		1억원 ~ 2억원	6E-05	0.00141
		2억원 초과	1E-05	9E-05
	대학(원)생	없음	0.38085	0.32147
		5백만원	0.4621	0.38557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5322	0.28341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339	0.00888
		1억원 ~ 2억원	0.00039	0.00064
		2억원 초과	5E-05	3E-05
	무직	없음	0.48591	0.23903
		5백만원	0.41286	0.37847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09956	0.36454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151	0.01643
		1억원 ~ 2억원	0.00014	0.00144
		2억원 초과	2E-05	9E-05
		총 부채	개별 2012	개별 2016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예	없음	0.44229	0.18552
		5백만원	0.43565	0.35979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1969	0.4268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212	0.02515	
		1억원 ~ 2억원	0.00022	0.00255	
		2억원 초과	3E-05	0.00019	
	아니오	없음	0.39763	0.21024	
		5백만원	0.45561	0.3701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434	0.397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298	0.02058	
		1억원 ~ 2억원	0.00034	0.00195	
		2억원 초과	4E-05	0.00013	
	결혼	미혼	없음	0.44229	0.18552
			5백만원	0.43565	0.35979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1969	0.4268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212	0.02515	
1억원 ~ 2억원			0.00022	0.00255	
2억원 초과			3E-05	0.00019	
기혼		없음	0.40724	0.1593	
		5백만원	0.45163	0.3451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0.13801	0.46045	
		3천만원 초과 ~ 1억원	0.00278	0.03141	
		1억원 ~ 2억원	0.0003	0.00347	
		2억원 초과	4E-05	0.00027	

3. 대부업으로부터 빌린 금액과 대부업 이용확률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금액	2012	2016
성별	남자	2백만원 이하	0.57221	0.13574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5377	0.41368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6643	0.31098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748	0.13153
		3천만원 초과	0.00011	0.00807
	여자	2백만원 이하	0.56936	0.14215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556	0.4187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673	0.30588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762	0.12582
		3천만원 초과	0.00012	0.00745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금액	2012	2016
연령	20대	2백만원 이하	0.57221	0.13574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5377	0.41368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6643	0.31098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748	0.13153
		3천만원 초과	0.00011	0.00807
	30대	2백만원 이하	0.42122	0.09451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43551	0.36978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12296	0.3431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1984	0.17841
		3천만원 초과	0.00047	0.0142
	40대	2백만원 이하	0.37136	0.07875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45407	0.34603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14701	0.35405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2682	0.20294
		3천만원 초과	0.00074	0.01823
	50대	2백만원 이하	0.34743	0.08341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46103	0.35356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15966	0.35097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3096	0.19517
		3천만원 초과	0.00092	0.01689
	60대	2백만원 이하	0.53506	0.11948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7683	0.39897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7831	0.32391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964	0.14768
		3천만원 초과	0.00016	0.00996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금액	2012	2016
학력	초등졸	2백만원 이하	0.57221	0.13574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5377	0.41368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6643	0.31098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748	0.13153
		3천만원 초과	0.00011	0.00807
	중졸	2백만원 이하	0.30872	0.15808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46915	0.42956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18178	0.29324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3903	0.11296
		3천만원 초과	0.00132	0.00616
	고졸	2백만원 이하	0.27386	0.14082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47258	0.41771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20357	0.30693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4816	0.12696
		3천만원 초과	0.00183	0.00758
대출		2백만원 이하	0.28049	0.15373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47224	0.42682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19928	0.29668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4627	0.11629
		3천만원 초과	0.00172	0.00648
대학원이상		2백만원 이하	0.2374	0.135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47137	0.41307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2284	0.31158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6021	0.1322
		3천만원 초과	0.00262	0.00815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금액	2012	2016
직업	회사원	2백만원 이하	0.57221	0.13574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5377	0.41368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6643	0.31098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748	0.13153
		3천만원 초과	0.00011	0.00807
	공무원	2백만원 이하	0.49674	0.0798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9876	0.34778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9189	0.35337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1238	0.20114
		3천만원 초과	0.00023	0.01791
	자영업자	2백만원 이하	0.56025	0.1319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6138	0.41046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7012	0.31405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812	0.13512
		3천만원 초과	0.00013	0.00847
	주부	2백만원 이하	0.67934	0.19603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27888	0.44753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3844	0.26401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33	0.0884
		3천만원 초과	4E-05	0.00403
	대학(원)생	2백만원 이하	0.56634	0.30965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5753	0.45674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6822	0.18761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779	0.04469
		3천만원 초과	0.00012	0.00131
	무직	2백만원 이하	0.68409	0.22773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2753	0.45577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374	0.24092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318	0.07268
		3천만원 초과	3E-05	0.0029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금액	2012	2016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예	2백만원 이하	0.57221	0.13574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5377	0.41368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6643	0.31098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748	0.13153
		3천만원 초과	0.00011	0.00807
	아니오	2백만원 이하	0.59462	0.19679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3908	0.44778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5983	0.26345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638	0.08798
		3천만원 초과	9E-05	0.004
결혼	미혼	2백만원 이하	0.57221	0.13574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5377	0.41368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6643	0.31098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748	0.13153
		3천만원 초과	0.00011	0.00807
	기혼	2백만원 이하	0.53293	0.12595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0.3781	0.40518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0.07903	0.31878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0.00977	0.14094
		3천만원 초과	0.00017	0.00915

4. 대부업 평균이자율과 대부업 이용확률

		대부금융회사의 평균 이자율	2012	2016
성별	남자	월2.90%이하 (연34.9%이하)	0.62442	0.63234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8873	0.16708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8956	0.02144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302	0.00662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108	0.00731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1917	0.03417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5402	0.13104
	여자	월2.90%이하 (연34.9%이하)	0.54714	0.60382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20805	0.17396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10881	0.02284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666	0.00708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438	0.00783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2545	0.03685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7951	0.14762
		대부금융회사의 평균 이자율	2012	2016
연령	20대	월2.90%이하(연34.9%이하)	0.62442	0.63234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8873	0.16708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8956	0.02144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302	0.00662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108	0.00731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1917	0.03417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5402	0.13104
	30대	월2.90%이하 (연34.9%이하)	0.58854	0.61394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9852	0.17161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9861	0.02235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469	0.00692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259	0.00765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22	0.03591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6505	0.14162
	40대	월2.90%이하 (연34.9%이하)	0.60304	0.62742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9473	0.16832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9497	0.02168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402	0.00671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197	0.0074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2084	0.03464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6043	0.13383
	50대	월2.90%이하 (연34.9%이하)	0.61148	0.62786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9242	0.16821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9285	0.02167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362	0.00669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162	0.0074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2017	0.03459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5784	0.13358
	60대	월2.90%이하 (연34.9%이하)	0.63411	0.62939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8585	0.16783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8709	0.02159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258	0.00667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068	0.00736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1842	0.03445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5127	0.13271

		대부금융회사의 평균 이자율	2012	2016
학 력	초 등 졸	월 2.90%이하(연 34.9%이하)	0.62442	0.63234
		월 2.90%초과~3.25%(연 34.9%초과~39%)	0.18873	0.16708
		월 3.25%초과~3.66%(연 39%초과~44%)	0.08956	0.02144
		월 3.66%초과~4.08%(연 44%초과~49%)	0.01302	0.00662
		월 4.08%초과~10%(연 49%초과~120%)	0.01108	0.00731
		월 10%초과~20%(연 120%초과~240%)	0.01917	0.03417
		월 20%초과~30%(연 240%초과~360%)	0.05402	0.13104
	중 졸	월 2.90%이하 (연 34.9%이하)	0.48909	0.81561
		월 2.90%초과~3.25%(연 34.9%초과~39%)	0.21807	0.10366
		월 3.25%초과~3.66%(연 39%초과~44%)	0.12246	0.0112
		월 3.66%초과~4.08%(연 44%초과~49%)	0.01946	0.00336
		월 4.08%초과~10%(연 49%초과~120%)	0.01699	0.00365
		월 10%초과~20%(연 120%초과~240%)	0.03056	0.01625
		월 20%초과~30%(연 240%초과~360%)	0.10337	0.04627
	고 졸	월 2.90%이하 (연 34.9%이하)	0.58651	0.76025
		월 2.90%초과~3.25%(연 34.9%초과~39%)	0.19903	0.12634
		월 3.25%초과~3.66%(연 39%초과~44%)	0.09912	0.01448
		월 3.66%초과~4.08%(연 44%초과~49%)	0.01479	0.00439
		월 4.08%초과~10%(연 49%초과~120%)	0.01267	0.0048
		월 10%초과~20%(연 120%초과~240%)	0.02217	0.0217
		월 20%초과~30%(연 240%초과~360%)	0.06571	0.06804
	대 졸	월 2.90%이하 (연 34.9%이하)	0.60114	0.75684
		월 2.90%초과~3.25%(연 34.9%초과~39%)	0.19524	0.12763
		월 3.25%초과~3.66%(연 39%초과~44%)	0.09545	0.01468
		월 3.66%초과~4.08%(연 44%초과~49%)	0.0141	0.00445
		월 4.08%초과~10%(연 49%초과~120%)	0.01206	0.00487
		월 10%초과~20%(연 120%초과~240%)	0.02098	0.02204
		월 20%초과~30%(연 240%초과~360%)	0.06103	0.06949
	대 학 원 이 상	월 2.90%이하 (연 34.9%이하)	0.61779	0.75321
		월 2.90%초과~3.25%(연 34.9%초과~39%)	0.19065	0.129
		월 3.25%초과~3.66%(연 39%초과~44%)	0.09124	0.01489
		월 3.66%초과~4.08%(연 44%초과~49%)	0.01333	0.00452
		월 4.08%초과~10%(연 49%초과~120%)	0.01136	0.00494
		월 10%초과~20%(연 120%초과~240%)	0.01967	0.0224
		월 20%초과~30%(연 240%초과~360%)	0.05596	0.07104
		대부금융회사의 평균 이자율	2012	2016
직 업	회사원	월 2.90%이하(연 34.9%이하)	0.62442	0.63234
		월 2.90%초과~3.25%(연 34.9%초과~39%)	0.18873	0.16708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8956	0.02144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302	0.00662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108	0.00731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1917	0.03417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5402	0.13104
공무원	월2.90%이하 (연34.9%이하)	0.527	0.62639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21197	0.16858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11365	0.02174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763	0.00672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528	0.00742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2718	0.03473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8729	0.13442
자영업자	월2.90%이하 (연34.9%이하)	0.61178	0.5742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9234	0.18025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9276	0.02421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361	0.00753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161	0.00836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2014	0.03956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5776	0.16589
주부	월2.90%이하 (연34.9%이하)	0.6452	0.62384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8244	0.16921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8424	0.02187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208	0.00676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023	0.00747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1759	0.03497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4822	0.13588
대학(원)생	월2.90%이하 (연34.9%이하)	0.61582	0.81343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9121	0.10462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9174	0.01133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342	0.0034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144	0.00369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1983	0.01647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5654	0.04706
무직	월2.90%이하 (연34.9%이하)	0.60006	0.57592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9553	0.1799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9572	0.02413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416	0.00752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209	0.00832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2108	0.03941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6136	0.1648
	대부금융회사의 평균 이자율	2012	2016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예	월2.90%이하(연34.9%이하)	0.62442	0.63234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8873	0.16708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8956	0.02144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302	0.00662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108	0.00731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1917	0.03417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5402	0.13104
	아니오	월2.90%이하 (연34.9%이하)	0.70787	0.63513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6069	0.16635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6808	0.02131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0933	0.00657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078	0.00726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1313	0.03391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331	0.12947
결혼	미혼	월2.90%이하 (연34.9%이하)	0.62442	0.63234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8873	0.16708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8956	0.02144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302	0.00662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108	0.00731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1917	0.03417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5402	0.13104
	기혼	월2.90%이하 (연34.9%이하)	0.63353	0.66575
		월2.90%초과~3.25%(연34.9%초과~39%)	0.18603	0.15798
		월3.25%초과~3.66%(연39%초과~44%)	0.08723	0.01973
		월3.66%초과~4.08%(연44%초과~49%)	0.01261	0.00607
		월4.08%초과~10%(연49%초과~120%)	0.01071	0.00668
		월10%초과~20%(연120%초과~240%)	0.01846	0.03097
		월20%초과~30%(연240%초과~360%)	0.05143	0.11282

5. 차입이유와 대부업 이용확률

		돈을 빌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	2012	2016
성별	남자	생계	0.91256	0.78887
		오락	0.01322	0.17752
		부채상환	0.07422	0.03361
	여자	생계	0.89739	0.7788
		오락	0.01659	0.19127
		부채상환	0.08602	0.02993
		돈을 빌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	2012	2016

연령	20대	생계	0.91256	0.78887
		오락	0.01322	0.17752
		부채상환	0.07422	0.03361
	30대	생계	0.89094	0.81418
		오락	0.01811	0.13787
		부채상환	0.09095	0.04795
	40대	생계	0.91782	0.82428
		오락	0.01211	0.1168
		부채상환	0.07007	0.05892
	50대	생계	0.90231	0.8283
		오락	0.01547	0.1053
		부채상환	0.08222	0.0664
	60대	생계	0.92086	0.83103
		오락	0.01149	0.09281
		부채상환	0.06765	0.07616
		돈을 빌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	2012	2016
학력	초등졸	생계	0.91256	0.78887
		오락	0.01322	0.17752
		부채상환	0.07422	0.03361
	중졸	생계	0.64521	0.82993
		오락	0.10834	0.09893
		부채상환	0.24645	0.07114
	고졸	생계	0.76024	0.83149
		오락	0.0582	0.08007
		부채상환	0.18156	0.08844
	대졸	생계	0.71568	0.83092
		오락	0.07592	0.07549
		부채상환	0.2084	0.09359
	대학원이상	생계	0.59533	0.83163
		오락	0.13474	0.08562
		부채상환	0.26993	0.08275
		돈을 빌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	2012	2016
직업	회사원	생계	0.91256	0.78887
		오락	0.01322	0.17752
		부채상환	0.07422	0.03361
	공무원	생계	0.94501	0.74497
		오락	0.00692	0.23378
		부채상환	0.04807	0.02125
	자영업자	생계	0.9317	0.78958
		오락	0.00935	0.17652

		부채상환	0.05895	0.0339
	주부	생계	0.95234	0.74749
		오락	0.00569	0.23075
		부채상환	0.04197	0.02176
	대학(원)생	생계	0.96724	0.68629
		오락	0.00342	0.30095
		부채상환	0.02934	0.01276
	무직	생계	0.96511	0.72494
		오락	0.00372	0.25735
		부채상환	0.03117	0.01771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돈을 빌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	2012	2016
	예	생계	0.91256	0.78887
		오락	0.01322	0.17752
		부채상환	0.07422	0.03361
	아니오	생계	0.90911	0.77291
		오락	0.01396	0.19901
		부채상환	0.07693	0.02808
결혼	미혼	생계	0.91256	0.78887
		오락	0.01322	0.17752
		부채상환	0.07422	0.03361
	기혼	생계	0.93842	0.81343
		오락	0.00809	0.13924
		부채상환	0.05349	0.04733

6. 사용 용도와 대부업 이용확률

		대부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사용 용도	2012	2016
성별	남자	사업자금	0.29409	0.05427
		가계생활자금	0.37863	0.83244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728	0.11329
	여자	사업자금	0.29792	0.04959
		가계생활자금	0.37443	0.84325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765	0.10716
		대부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사용 용도	2012	2016
연령	20대	사업자금	0.29409	0.05427
		가계생활자금	0.37863	0.83244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728	0.11329

	30대	사업자금	0.31307	0.05991
		가계생활자금	0.35816	0.81978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877	0.12031
	40대	사업자금	0.29638	0.05223
		가계생활자금	0.37611	0.8371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751	0.11067
	50대	사업자금	0.35142	0.0758
		가계생활자금	0.31951	0.7861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907	0.1381
	60대	사업자금	0.36512	0.08219
		가계생활자금	0.30652	0.77323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836	0.14458
		대부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사용 용도	2012	2016
학력	초등졸	사업자금	0.29409	0.05427
		가계생활자금	0.37863	0.83244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728	0.11329
	중졸	사업자금	0.08062	0.03425
		가계생활자금	0.70897	0.88114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21041	0.08461
	고졸	사업자금	0.07415	0.04589
		가계생활자금	0.72409	0.85201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20176	0.1021
	대졸	사업자금	0.10133	0.05053
		가계생활자금	0.66401	0.84104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23466	0.10843
	대학원이상	사업자금	0.14534	0.0688
		가계생활자금	0.58164	0.80062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27302	0.13058
		대부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사용 용도	2012	2016
직업	회사원	사업자금	0.29409	0.05427
		가계생활자금	0.37863	0.83244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728	0.11329
	공무원	사업자금	0.32575	0.07289
		가계생활자금	0.345	0.79207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925	0.13504
	자영업자	사업자금	0.74519	0.33583
		가계생활자금	0.06552	0.41407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18929	0.2501
	주부	사업자금	0.24148	0.04728
		가계생활자금	0.44077	0.8487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1775	0.10402
	대학(원)생	사업자금	0.16093	0.05847
		가계생활자금	0.55571	0.82298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28336	0.11855
	무직	사업자금	0.26328	0.1217
		가계생활자금	0.414	0.70041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272	0.17789
		대부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사용 용도	2012	2016
금융채무불이행 자 여부	예	사업자금	0.29409	0.05427
		가계생활자금	0.37863	0.83244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728	0.11329
	아니오	사업자금	0.2765	0.04906
		가계생활자금	0.39848	0.84448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502	0.10646
결혼	미혼	사업자금	0.29409	0.05427
		가계생활자금	0.37863	0.83244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728	0.11329
	기혼	사업자금	0.26026	0.03786
		가계생활자금	0.41762	0.87184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0.32212	0.0903

7. 대부업 선택시 고려사항과 대부업 이용확률

		대부금융회사 선택시 고려사항	2012	2016
성별	남자	이자율	0.60024	0.37093
		대부업 등록 여부	0.09239	0.10134
		대출의 신속성	0.29036	0.50704
		친절도	0.01701	0.02069
	여자	이자율	0.59847	0.39626
		대부업 등록 여부	0.09306	0.12426
		대출의 신속성	0.29127	0.45063
		친절도	0.0172	0.02885
		대부금융회사 선택시 고려사항	2012	2016
연령	20대	이자율	0.60024	0.37093
		대부업 등록 여부	0.09239	0.10134
		대출의 신속성	0.29036	0.50704
		친절도	0.01701	0.02069
	30대	이자율	0.59556	0.37463

		대부업 등록 여부	0.09416	0.10427
		대출의 신속성	0.29276	0.49944
		친절도	0.01752	0.02166
	40대	이자율	0.61149	0.398
		대부업 등록 여부	0.08821	0.12615
		대출의 신속성	0.28449	0.44626
		친절도	0.01581	0.02959
	50대	이자율	0.63859	0.39727
		대부업 등록 여부	0.07849	0.12535
		대출의 신속성	0.26973	0.44811
		친절도	0.01319	0.02927
	60대	이자율	0.53159	0.4185
		대부업 등록 여부	0.11982	0.15412
		대출의 신속성	0.32271	0.38569
		친절도	0.02588	0.04169
		대부금융회사 선택시 고려사항	2012	2016
학력	초등졸	이자율	0.60024	0.37093
		대부업 등록 여부	0.09239	0.10134
		대출의 신속성	0.29036	0.50704
		친절도	0.01701	0.02069
	중졸	이자율	0.35038	0.38047
		대부업 등록 여부	0.20788	0.10913
		대출의 신속성	0.37252	0.48708
		친절도	0.06922	0.02332
	고졸	이자율	0.47678	0.39701
		대부업 등록 여부	0.1441	0.12507
		대출의 신속성	0.34379	0.44875
		친절도	0.03533	0.02917
	대졸	이자율	0.48533	0.3886
		대부업 등록 여부s	0.14018	0.11651
		대출의 신속성	0.3408	0.46895
		친절도	0.03369	0.02594
	대학원이상	이자율	0.42934	0.38825
		대부업 등록 여부	0.1668	0.11619
		대출의 신속성	0.35814	0.46974
		친절도	0.04572	0.02582
		대부금융회사 선택시 고려사항	2012	2016
직업	회사원	이자율	0.60024	0.37093
		대부업 등록 여부	0.09239	0.10134
		대출의 신속성	0.29036	0.50704

		친절도	0.01701	0.02069
공무원		이자율	0.68215	0.35309
		대부업 등록 여부	0.06395	0.08861
		대출의 신속성	0.24425	0.54156
		친절도	0.00965	0.01674
자영업자		이자율	0.59132	0.36277
		대부업 등록 여부	0.09577	0.09524
		대출의 신속성	0.29491	0.52324
		친절도	0.018	0.01875
주부		이자율	0.58967	0.38367
		대부업 등록 여부	0.0964	0.11197
		대출의 신속성	0.29574	0.48006
		친절도	0.01819	0.0243
대학(원)생		이자율	0.5779	0.35152
		대부업 등록 여부	0.10096	0.0876
		대출의 신속성	0.30156	0.54445
		친절도	0.01958	0.01643
무직		이자율	0.64244	0.38307
		대부업 등록 여부	0.07716	0.11142
		대출의 신속성	0.26756	0.4814
		친절도	0.01284	0.02411
		대부금융회사 선택시 고려사항	2012	2016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예	이자율	0.60024	0.37093
		대부업 등록 여부	0.09239	0.10134
		대출의 신속성	0.29036	0.50704
		친절도	0.01701	0.02069
	아니오	이자율	0.60277	0.36663
		대부업 등록 여부	0.09145	0.09806
		대출의 신속성	0.28905	0.51567
		친절도	0.01673	0.01964
결혼	미혼	이자율	0.60024	0.37093
		대부업 등록 여부	0.09239	0.10134
		대출의 신속성	0.29036	0.50704
		친절도	0.01701	0.02069
	기혼	이자율	0.58549	0.36955
		대부업 등록 여부	0.098	0.10027
		대출의 신속성	0.29783	0.50983
		친절도	0.01868	0.02035

8. 대부업을 알게 된 경로와 대부업 이용 확률

		대부금융회사를 알게 된 경로	2012	2016
성별	남자	케이블 등 TV광고	0.53038	0.38103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41	0.03218
		인터넷(메일)	0.1566	0.28369
		친구 등 지인	0.14479	0.12188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9022	0.0647
		일간지	0.0426	0.11652
	여자	케이블 등 TV광고	0.53797	0.37905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33	0.03475
		인터넷(메일)	0.15416	0.26507
		친구 등 지인	0.14378	0.12587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8715	0.07206
		일간지	0.04161	0.1232
		대부금융회사를 알게 된 경로	2012	2016
연령	20대	케이블 등 TV광고	0.53038	0.38103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41	0.03218
		인터넷(메일)	0.1566	0.28369
		친구 등 지인	0.14479	0.12188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9022	0.0647
		일간지	0.0426	0.11652
	30대	케이블 등 TV광고	0.51593	0.38145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55	0.02668
		인터넷(메일)	0.16118	0.32845
		친구 등 지인	0.14657	0.11194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9627	0.05007
		일간지	0.0445	0.10141
	40대	케이블 등 TV광고	0.41539	0.38186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17	0.02791
		인터넷(메일)	0.19025	0.31781
		친구 등 지인	0.154	0.11434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14698	0.0532
		일간지	0.05821	0.10488
	50대	케이블 등 TV광고	0.34635	0.37809
		생활정보지(무가지)	0.03356	0.03569
		인터넷(메일)	0.20613	0.25857
		친구 등 지인	0.15344	0.12722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1927	0.07484
		일간지	0.06782	0.12559

	60대	케이블 등 TV광고	0.4691	0.37206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66	0.04006
		인터넷(메일)	0.1754	0.23034
		친구 등 지인	0.15116	0.13288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11788	0.0884
		일간지	0.0508	0.13626
		대부금융회사를 알게 된 경로	2012	2016
학력	초등졸	케이블 등 TV광고	0.53038	0.38103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41	0.03218
		인터넷(메일)	0.1566	0.28369
		친구 등 지인	0.14479	0.12188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9022	0.0647
		일간지	0.0426	0.11652
	중졸	케이블 등 TV광고	0.40335	0.3773
		생활정보지(무가지)	0.03498	0.03637
		인터넷(메일)	0.19331	0.25392
		친구 등 지인	0.15425	0.12819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15422	0.07691
		일간지	0.05989	0.12731
	고졸	케이블 등 TV광고	0.47942	0.3757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68	0.02151
		인터넷(메일)	0.17236	0.37867
		친구 등 지인	0.1503	0.10052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11284	0.03758
		일간지	0.0494	0.08602
	대졸	케이블 등 TV광고	0.49006	0.37344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67	0.02038
		인터넷(메일)	0.16917	0.39089
		친구 등 지인	0.14933	0.09772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10781	0.03504
		일간지	0.04796	0.08253
	대학원이상	케이블 등 TV광고	0.49056	0.37064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67	0.01922
		인터넷(메일)	0.16901	0.40413
		친구 등 지인	0.14929	0.09471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10758	0.03246
		일간지	0.04789	0.07884
		대부금융회사를 알게 된 경로	2012	2016
직업	회사원	케이블 등 TV광고	0.53038	0.38103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41	0.03218

		인터넷(메일)	0.1566	0.28369
		친구 등 지인	0.14479	0.12188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9022	0.0647
		일간지	0.0426	0.11652
공무원		케이블 등 TV광고	0.53369	0.37959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38	0.03417
		인터넷(메일)	0.15554	0.26917
		친구 등 지인	0.14435	0.12499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8888	0.07037
		일간지	0.04216	0.12171
자영업자		케이블 등 TV광고	0.53452	0.37845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37	0.03535
		인터넷(메일)	0.15527	0.2609
		친구 등 지인	0.14424	0.12674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8854	0.07383
		일간지	0.04206	0.12473
주부		케이블 등 TV광고	0.58021	0.37775
		생활정보지(무가지)	0.03461	0.036
		인터넷(메일)	0.14024	0.2565
		친구 등 지인	0.13734	0.12765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7138	0.07575
		일간지	0.03622	0.12635
대학(원)생		케이블 등 TV광고	0.4069	0.36989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03	0.04132
		인터넷(메일)	0.19242	0.22271
		친구 등 지인	0.1542	0.13432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15206	0.09253
		일간지	0.05939	0.13923
무직		케이블 등 TV광고	0.46631	0.38197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65	0.0291
		인터넷(메일)	0.17622	0.30789
		친구 등 지인	0.15137	0.11656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11927	0.0563
		일간지	0.05118	0.10818
		대부금융회사를 알게 된 경로	2012	2016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예	케이블 등 TV광고	0.53038	0.38103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41	0.03218
		인터넷(메일)	0.1566	0.28369
		친구 등 지인	0.14479	0.12188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9022	0.0647

결혼	아니오	일간지	0.0426	0.11652
		케이블 등 TV광고	0.59804	0.37883
		생활정보지(무가지)	0.03418	0.03497
		인터넷(메일)	0.13421	0.26349
		친구 등 지인	0.13421	0.1262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6534	0.07273
		일간지	0.03402	0.12378
	미혼	케이블 등 TV광고	0.53038	0.38103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41	0.03218
		인터넷(메일)	0.1566	0.28369
		친구 등 지인	0.14479	0.12188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9022	0.0647
		일간지	0.0426	0.11652
	기혼	케이블 등 TV광고	0.53878	0.38029
		생활정보지(무가지)	0.03533	0.03331
		인터넷(메일)	0.1539	0.27538
		친구 등 지인	0.14366	0.12367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0.08683	0.06788
		일간지	0.0415	0.11947

9. 대부업 이용 전 상담 받은 금융기관과 대부업 이용확률

		대부금융회사 이용 전 상담 받은 금융기관	2016
성별	남자	은행	0.11411
		저축은행	0.18386
		신협	0.15536
		새마을금고	0.54667
	여자	은행	0.11142
		저축은행	0.18171
		신협	0.15873
		새마을금고	0.54814
		대부금융회사 이용 전 상담 받은 금융기관	2016
연령	20대	은행	0.11411
		저축은행	0.18386
		신협	0.15536
		새마을금고	0.54667
	30대	은행	0.14091
		저축은행	0.2031
		신협	0.12664
		새마을금고	0.52935

	40대	은행	0.14317
		저축은행	0.20455
		신협	0.12456
		새마을금고	0.52772
	50대	은행	0.12818
		저축은행	0.19447
		신협	0.13926
		새마을금고	0.53809
	60대	은행	0.09578
		저축은행	0.16815
		신협	0.1807
		새마을금고	0.55537
		대부금융회사 이용 전 상담 받은 금융기관	2016
학력	초등졸	은행	0.11411
		저축은행	0.18386
		신협	0.15536
		새마을금고	0.54667
	중졸	은행	0.17639
		저축은행	0.22317
		신협	0.09862
		새마을금고	0.50182
	고졸	은행	0.22272
		저축은행	0.24208
		신협	0.07275
		새마을금고	0.46245
	대졸	은행	0.27891
		저축은행	0.2564
		신협	0.05128
		새마을금고	0.41341
대학원이상	은행	0.2915	
	저축은행	0.25852	
	신협	0.04749	
	새마을금고	0.40249	
		대부금융회사 이용 전 상담 받은 금융기관	2016
직업	회사원	은행	0.11411
		저축은행	0.18386
		신협	0.15536
		새마을금고	0.54667
	공무원	은행	0.14021
		저축은행	0.20265

		신협	0.12729
		새마을금고	0.52985
자영업자		은행	0.13543
		저축은행	0.19948
		신협	0.13187
		새마을금고	0.53322
주부		은행	0.09657
		저축은행	0.16888
		신협	0.17948
		새마을금고	0.55507
대학(원)생		은행	0.13615
		저축은행	0.19997
		신협	0.13117
		새마을금고	0.53271
무직		은행	0.09294
		저축은행	0.1655
		신협	0.18518
		새마을금고	0.55638
		대부금융회사 이용 전 상담 받은 금융기관	2016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예	은행	0.11411
		저축은행	0.18386
		신협	0.15536
		새마을금고	0.54667
	아니오	은행	0.13974
		저축은행	0.20235
		신협	0.12773
		새마을금고	0.53018
결혼	미혼	은행	0.11411
		저축은행	0.18386
		신협	0.15536
		새마을금고	0.54667
	기혼	은행	0.12692
		저축은행	0.19356
		신협	0.1406
		새마을금고	0.53892

10. 금융기관 상담 후 대부업 이용 이유와 대부업 이용확률

		금융기관과 상담 후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이유	2012	2016
성별	남자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5299	0.37362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707	0.36357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3919	0.19834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75	0.06447
	여자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4847	0.37499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796	0.35188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427	0.20461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87	0.06852
		금융기관과 상담 후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이유	2012	2016
학력	초등졸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5299	0.37362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707	0.36357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3919	0.19834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75	0.06447
	중졸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63825	0.37709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10462	0.30457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22527	0.23078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3186	0.08756
	고졸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62977	0.3771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10796	0.31744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22876	0.22355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3351	0.08191
	대졸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64237	0.37471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10301	0.3545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22354	0.2032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3108	0.06759
	대 학 원 이상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58918	0.37044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12434	0.38418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24428	0.18748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422	0.0579
		금융기관과 상담 후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이유	2012	2016
연령	20대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5299	0.37362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707	0.36357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3919	0.19834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75	0.06447
	30대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5318	0.37708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704	0.30462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3904	0.23075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74	0.08755
40대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3807	0.3742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1008	0.26679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5066	0.25238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119	0.10663
50대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3183	0.36534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1141	0.22525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5536	0.27648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14	0.13293
60대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60135	0.364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11937	0.22088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23983	0.27901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3945	0.13611
		금융기관과 상담 후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이유	2012	2016
직업	회사원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5299	0.37362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707	0.36357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3919	0.19834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75	0.06447
	공무원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5472	0.3764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675	0.33502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3783	0.2138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7	0.07478
	자영업자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4392	0.37602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888	0.34057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462	0.21075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1	0.07266
	주부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4212	0.37682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924	0.3269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4758	0.21829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106	0.07799
	대 학(원) 생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1347	0.32314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1555	0.53473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6888	0.1168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21	0.02533
	무직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5034	0.37661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759	0.33152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4125	0.21573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82	0.07614

		금융기관과 상담 후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이유	2012	2016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	예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5299	0.37362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707	0.36357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3919	0.19834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75	0.06447
	아니오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83884	0.37437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3523	0.35753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11954	0.20157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639	0.06653
결혼	미혼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5299	0.37362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707	0.36357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3919	0.19834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75	0.06447
	기혼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0.95389	0.36911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0.0069	0.39146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0.03848	0.1837
		담보나 보증인 등이 요구하므로	0.00073	0.05573

11. 금융기관과 상담하지 않고 대부업 이용한 이유와 대부업 이용확률

		상담을 받지 않고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이유	2012	2016
성별	남자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1083	0.2604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1329	0.32434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679	0.3320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798	0.08319
	여자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0556	0.25957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1567	0.31479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7049	0.33828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828	0.08736
		상담을 받지 않고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이유	2012	2016
연령	20대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1083	0.2604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1329	0.32434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679	0.3320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798	0.08319
	30대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3014	0.249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0479	0.25596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5809	0.37617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698	0.11827
40대		과거 대출 거절 당한 적이 있어서	0.55613	0.2505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09399	0.26004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4407	0.3736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581	0.11579
50대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2521	0.23615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0691	0.21128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6065	0.40283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723	0.14974
60대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48406	0.26104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2574	0.33188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8062	0.32704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958	0.08004
		상담을 받지 않고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이유	2012	2016
학력	초등졸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1083	0.2604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1329	0.32434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679	0.3320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798	0.08319
	중졸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29813	0.2622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23839	0.37558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43152	0.2982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3196	0.06395
	고졸	과거 대출 거절 당한 적이 있어서	0.33396	0.26175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21268	0.39403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42798	0.28609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2538	0.05813
	대졸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29851	0.26133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23811	0.40238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4315	0.28064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3188	0.05565
	대학원 이상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35029	0.2622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20166	0.36207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42519	0.3071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2286	0.06856
		상담을 받지 않고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이유	2012	2016
직업	회사원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1083	0.2604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1329	0.32434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679	0.3320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798	0.08319
공무원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33349	0.2622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21302	0.37552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42804	0.29825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2545	0.06397
자영업자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4053	0.25611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0039	0.28858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5259	0.35539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649	0.09992
주부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4731	0.24407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09757	0.23528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4893	0.38885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619	0.1318
대 학(원) 생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36835	0.2065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8996	0.14935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42133	0.43232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2036	0.21177
무직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39237	0.20774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7513	0.15133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41504	0.4316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1746	0.20932
		상담을 받지 않고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이유	2012	2016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	예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1083	0.2604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1329	0.32434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679	0.3320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798	0.08319
	아니오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31996	0.25681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22248	0.293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4298	0.3525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2776	0.09768
결혼	미혼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51083	0.2604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1329	0.32434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679	0.33201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0798	0.08319
	기혼	과거 대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0.47655	0.25461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0.12939	0.27984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0.38399	0.36103
		과다채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0.01007	0.10452

12. 채무상환에 대한 방법과 대부업 이용확률

		채무상환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2012	2016
성별	남자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2874	0.71173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404	0.04795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314	0.0676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3408	0.17272
	여자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89664	0.69029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3322	0.04975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754	0.07099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526	0.18897
		채무상환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2012	2016
연령	20대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2874	0.71173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404	0.04795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314	0.0676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3408	0.17272
	30대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3163	0.71289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317	0.04783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272	0.06743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3248	0.17185
	40대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3854	0.75904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107	0.04331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168	0.05941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2871	0.13824
	50대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195	0.7575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676	0.04347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447	0.05969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3927	0.13934
	60대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89706	0.82226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3311	0.03561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748	0.04687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5235	0.09526
		채무상환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2012	2016
학력	초등졸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2874	0.71173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404	0.04795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314	0.0676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3408	0.17272
	중졸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74299	0.65575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6834	0.0523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3245	0.07599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15622	0.21596
고졸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86287	0.77921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4212	0.04105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216	0.05561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7341	0.12413
대졸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87532	0.80307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3893	0.03814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2016	0.05087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6559	0.10792
대학원 이상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4465	0.9059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192	0.02233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072	0.02729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2543	0.04448
		채무상환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2012	2016
직업	회사원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2874	0.71173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404	0.04795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314	0.0676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3408	0.17272
	공무원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88312	0.61002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3688	0.05499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922	0.08177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6078	0.25322
	자영업자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4273	0.73968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1978	0.04531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103	0.06289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2646	0.15212
	주부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1425	0.70839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828	0.04823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52	0.06815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4227	0.17523
	대학(원)생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83376	0.8098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4923	0.03728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247	0.04948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9231	0.10344
	무직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82569	0.55131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5111	0.0573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2551	0.08774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9769	0.30363
		채무상환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2012	2016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	예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2874	0.71173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404	0.04795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314	0.0676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3408	0.17272
	아니오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7193	0.82654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1031	0.03503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0608	0.04595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1168	0.09248
결혼	미혼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2874	0.71173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404	0.04795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314	0.0676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3408	0.17272
	기혼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0.93852	0.73098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	0.02109	0.04616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0.01167	0.0644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	0.02872	0.15846

13. 대부업의 부족한 점과 대부업 이용확률

		대부금융회사의 가장 부족한 점	2012	2016
성별	남자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0173	0.44787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851	0.18271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7678	0.15315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7	0.03542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4598	0.18085
	여자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68132	0.44513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625	0.18455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8548	0.15372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838	0.03563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5232	0.18097
		대부금융회사의 가장 부족한 점	2012	2016
연령	20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0173	0.44787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851	0.18271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7678	0.15315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7	0.03542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4598	0.18085

	30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2371	0.48642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417	0.15815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679	0.1446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553	0.0325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3869	0.17833
	40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4193	0.48656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052	0.15807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6093	0.14457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432	0.03248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323	0.17832
	50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1202	0.50999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649	0.14431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7256	0.139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631	0.03069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4262	0.17601
	60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65653	0.58348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6724	0.10622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9668	0.12005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2006	0.02506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5949	0.16519
		대부금융회사의 가장 부족한 점	2012	2016
학력	초등졸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0173	0.44787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851	0.18271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7678	0.15315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7	0.03542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4598	0.18085
	중졸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59552	0.56589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7849	0.11467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12725	0.12476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242	0.02641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7454	0.16827
	고졸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69943	0.68389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897	0.06492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7774	0.09155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715	0.01762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4671	0.14202
대출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5355	0.70447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4819	0.05781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5666	0.08546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356	0.01616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2804	0.1361
대학원 이상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81187	0.7263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3633	0.05073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3733	0.07894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0981	0.01463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0466	0.1294
		대부금융회사의 가장 부족한 점	2012	2016
직업	회사원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0173	0.44787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851	0.18271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7678	0.15315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7	0.03542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4598	0.18085
	공무원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65173	0.38537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6815	0.22822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9892	0.16501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2039	0.04002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6081	0.18138
	자영업자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65827	0.45543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6692	0.1777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9587	0.15154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994	0.03485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59	0.18048
	주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2798	0.35726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332	0.25133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6624	0.16937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524	0.04197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3722	0.18007
	대학(원)생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61615	0.49293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7477	0.15424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11642	0.14308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228	0.032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6986	0.17775
	무직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6071	0.31747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7641	0.28729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1211	0.17424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2342	0.04457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7197	0.17643
		대부금융회사의 가장 부족한 점	2012	2016
금융채무불 이행자 여부	예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0173	0.44787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851	0.18271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7678	0.15315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7	0.03542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4598	0.18085
	아니오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66235	0.45915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6614	0.17527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9399	0.15073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966	0.03457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5786	0.18028
결혼	미혼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0173	0.44787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851	0.18271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7678	0.15315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7	0.03542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4598	0.18085
	기혼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0.71503	0.49662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 심사	0.05588	0.15206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0.07134	0.14221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612	0.03171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0.14163	0.1774

14. 대부업의 장점과 대부업 이용확률

		대부금융회사의 가장 좋은 점	2012	2016
성별	남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3698	0.68246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355	0.20794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192	0.02606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7755	0.08354
여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49201	0.66242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5373	0.21721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5305	0.02798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20121	0.09239
		대부금융회사의 가장 좋은 점	2012	2016
연령	20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3698	0.68246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355	0.20794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192	0.02606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7755	0.08354
	30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1727	0.62269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834	0.23423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655	0.03178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8784	0.1113
	40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3686	0.64346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359	0.22556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195	0.02979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776	0.10119
	50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7347	0.58668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3339	0.24806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3429	0.0352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5885	0.13006
	60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36632	0.66818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6659	0.21459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9777	0.02743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26932	0.0898
		대부금융회사의 가장 좋은 점	2012	2016
학력	초등졸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3698	0.68246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355	0.20794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192	0.02606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7755	0.08354
	중졸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4431	0.55132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165	0.26007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03	0.03853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7374	0.15008
	고졸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9846	0.63744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2549	0.22813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2969	0.03036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4636	0.10407
	대졸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63314	0.68745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1332	0.20556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2407	0.02559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2947	0.0814
	대학원 이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72147	0.69327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1762	0.20275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131	0.02504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08923	0.07894
		대부금융회사의 가장 좋은 점	2012	2016
직업	회사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3698	0.68246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355	0.20794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192	0.02606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7755	0.08354
	공무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5614	0.65368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3843	0.22111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3777	0.02881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6766	0.0964
	자영업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1319	0.71244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927	0.19323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756	0.02323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8998	0.0711
	주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2175	0.6774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73	0.21032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546	0.02655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8549	0.08573
	대학(원)생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44116	0.71368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6187	0.19261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6838	0.0231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22859	0.07061
	무직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49188	0.60491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5376	0.24125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5309	0.03347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20127	0.12037
		대부금융회사의 가장 좋은 점	2012	2016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	예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3698	0.68246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355	0.20794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192	0.02606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7755	0.08354
	아니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6303	0.72597

결혼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3647	0.18628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3636	0.02194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6414	0.06581
	미혼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3698	0.68246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355	0.20794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192	0.02606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7755	0.08354
	기혼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0.51275	0.71331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0.24937	0.19279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 서비스	0.04766	0.02314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0.19022	0.07076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설문조사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 응답입니다.

대부금융회사* 이용자 설문조사지

* 대부업법에 의거 시·도에 대부업 등록 절차를 거쳐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을 의미(등록 대부업자)

- 가. 성별 () : ① 남 ② 여
- 나. 연령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다. 학력 () : ① 초등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이상
- 라. 직업 () :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자영업자 ④ 주부
⑤ 대학(원)생 ⑥ 무직 ⑦ 기타()
- 마. 월평균 소득 ()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바.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여부 () : ① 예 ② 아니오
* 통상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50만원 초과 채무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자
- 사. 결혼 () : ① 미혼 ② 기혼
- 아. 동거 가족 수(본인 포함) ()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인 이상

I. 대부금융회사 이용현황

- 귀하는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귀하가 이용하고 있는(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
할 시·도에 등록된 대부금융회사인가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등록·미등록 모두 있음 ④ 모름
- 현재 돈을 빌린 대부금융회사는 몇 개나 되나요?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⑥ 5개 이상
⑦ 돈을 빌린 대부금융회사의 정확한 수를 모름

4. 현재 대부금융을 포함한 귀하의 총 부채금액은 얼마인가요?

- ① 없음 ② 5백만원 이하 ③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 ④ 3천만원 초과 ~ 1억원 ⑤ 1억원 초과 ~ 2억원 ⑥ 2억원 초과
- ⑦ 정확한 부채금액을 모름

5. 현재 귀하의 부채총액 중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금액은 얼마인가요?

- ① 2백만원 이하 ②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 ③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④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⑤ 3천만원 초과
- ⑥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정확한 금액을 모름

6. 귀하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부금융회사의 평균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 ① 월 2.90%이하(연34.9%이하) ② 월 2.90%초과 ~ 3.25%(연34.9%초과~39%)
- ③ 월 3.25%초과 ~ 3.66%(연39%초과~44%) ④ 월 3.66%초과 ~ 4.08%(연44%초과~49%)
- ⑤ 월 4.08%초과 ~ 10%(연49%초과~120%) ⑥ 월 10%초과 ~ 20%(연120%초과~240%)
- ⑦ 월 20%초과 ~ 30%(연240%초과~360%) ⑧ 월 30%초과(연360%초과)
- ⑨ 모름

II. 이용자 특성

7. 귀하께서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 ① 실직 및 휴직 ② 부도 등 사업실패 ③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필요
- ④ 경마, 화투 등 도박 ⑤ 술, 오락 등 유흥비 마련
- ⑥ 옷 등 과도한 쇼핑(과소비) ⑦ 금융회사 대출금 정리
- ⑧ 기타()

8.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나요?

- ① 사업자금 ② 가계생활자금 ③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정리
- ④ 카드(연체)대금납부 ⑤ 다른 대부금융 대출 상환
- ⑥ 기타()

9. 귀하가 대부금융회사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① 이자율 ② 대부업 등록 여부 ③ 대출의 신속성 ④ 친절도
⑤ 대출기간 ⑥ 대출금액 ⑦ 기타()

10. 돈을 빌려준 대부금융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① 케이블 등 TV광고 ② 생활정보지(무가지) ③ 인터넷(메일) ④ 친구 등 지인
⑤ 핸드폰 광고(문자포함) ⑥ 일간지 ⑦ 전단지
⑧ 중개업자

11. 대출 신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①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으로 신청
③ 모바일을 통해 신청 ④ 전화로 신청
⑤ 중개업자에게 신청
⑥ 기타()

12. 귀하가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한 사실을 가족들(부모, 형제, 배우자 등)이 알고
있나요?

- ①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
- ②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되었다.
- ③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으나 차차 알릴 생각이다.
- ④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알리지 않을 생각이다.

13. 귀하는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하기에 앞서 대출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은 금융기관이 있습니까?

- ① 은행 ② 저축은행 ③ 신협 ④ 새마을금고
⑤ 금융기관에서 상담 받은 적 없음

14-1. (13번에서 ①~④를 선택하신 경우만 응답)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상담을 받은 이후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해서
- ② 원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 ③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지는 못하여서
- ④ 담보나 보증인 등을 요구하므로
- ⑤ 기타()

14-2. (13번에서 ⑤를 선택하신 경우만 응답)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상담을 받지 않고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저신용, 신용불량 등으로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거절 당한 적이 있어서
- ②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 ③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므로
- ④ 과다채무로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서
- ⑤ 기타()

Ⅲ. 채무상환능력

15. 귀하는 현재의 채무상환을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 ① 자력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
-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다.
- ③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다.
- ④ 법원의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신청하고 있거나 신청할 계획이다.
- 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⑥ 기타 ()

16. 귀하가 최근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평균연체일수는?

- ① 정상납부 ② 10일 이내 ③ 10일 ~ 1개월 ④ 1개월 ~ 3개월

- ⑤ 3개월 ~ 6개월 ⑥ 6개월 ~ 1년 ⑦ 1년 이상 ⑧ 모름

17. 귀하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요? (대부금융회사의 채무 정리에 필요한 자금 + 생계자금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등)
- ① 5백만원 이하 ②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③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④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⑤ 5천만원 초과 ~ 1억원 ⑥ 1억원 초과

IV. 불법사채 이용 현황

18. 귀하는 현재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9. (18번에서 “① 예”를 선택하신 경우만 해당) 귀하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업자가 불법사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확인해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② 주변에서 불법사채라고 해서
 ③ 계속 거짓말을 해서
 ④ 협박을 하는 등 과도한 추심을 해서
20. (18번에서 “① 예”를 선택하신 경우만 해당) 귀하가 현재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 ① 2백만원 이하 ②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③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④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⑤ 3천만원 초과
 ⑥ 정확한 금액을 모름
21. (18번에서 “① 예”를 선택하신 경우만 해당) 귀하가 현재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부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 ② 대부금융회사인 줄 알고 이용했다.
- ③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던 회사여서
- ④ 업자로부터 대출을 강요당해서

V. 대부금융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22. 귀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아는 항목을 모두 선택)
- ① 전혀 모름
 - ② 대부금융회사의 관할시·도 등록의무화
 - ③ 법정 이자율 상한(연 34.9%)
 - ④ 폭력·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금지
 - ⑤ 대부계약서 중요사항(대출금액 및 이자율 등)의 자필기재 및 교부 의무화
 - ⑥ 고객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금지
23. 귀하는 대부업을 이용하기에 전에 대부금융회사가 관할 시·도에 등록된 대부금융회사인지 확인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4. (23번에서 “① 예”를 선택하신 경우만 해당)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십니까?
- ①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의 등록업체 조회하기를 이용했다.
 - ②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전화하여 확인했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하여 확인했다.
 - ④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했다.
25.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불법사채업자이며, 형사 처벌 대상인 점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6. 2015년 중 귀하가 대부금융회사(등록 대부업자)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내용을 모두 선택 또는 기재)

- ① 불법 고금리 대출(선이자 및 수수료 공제) ②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요구
- ③ 계약서 허위기재 및 미교부
- ④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 기재 요구
- ⑤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⑥ 없음
- ⑦ 기타()

27. 2015년 중 귀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폭행·협박 등의 불법 또는 부당한 채권 추심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 또는 기재)

- ① 폭행 ② 협박 ③ 감금
- ④ 채무와 무관한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독촉 또는 채무사실에 관하여 알림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
- ⑥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조성 ⑦ 없음
- ⑧ 기타()

28. 귀하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금융 관련 피해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사례를 신고한 경험이 있나요?

- ① 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몰라서 피해를 신고한 적이 없음
- ② 신고센터 운영 사실은 알고 있으나 피해사례가 없어 신고한 적이 없음
- ③ 피해사례를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구제받지 못함
- ④ 피해사례를 신고하여 구제받은 사실이 있음

VI. 기 타

29. 2015년 중 대부중개업체(인)을 통하여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하신 적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30. (앞의 질문에서 “① 예”를 선택하신 경우만 해당) 대부중개업체(인)에게 어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셨나요?

- 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 ② 대출액의 5%이하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 ③ 대출액의 5%초과~10%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 ④ 대출액의 10%초과~20%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 ⑤ 대출액의 20%초과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 ⑥ 모름

31.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서 대부금융회사가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 ② 담보나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대출심사
- ③ 신용도나 소득에 비해 부족한 대출액수
- ④ 고객 권리안내 부족 및 불친절한 고객센터서비스
- ⑤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나쁜 이미지
- ⑥ 기타 ()

32.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서 대부금융회사가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
- ②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
- ③ 고객 상담 등의 경우 친절한 고객센터서비스
- ④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대출이 가능
- ⑤ 기타 ()

☺ 끝까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